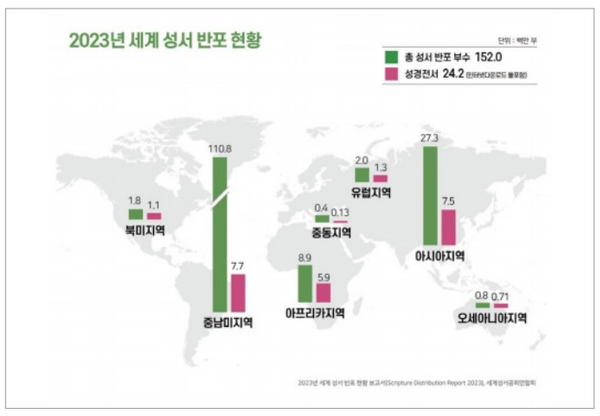
기독일보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86호

지난해 전 세계서 성경 2,420만 부 이상 반포돼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받은 아이티의 청소년들 ⓒ대한성서공회

신할라어 성경을 받은 스리랑카 이주민들 ⓒ대한성서공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사무총장 더크 게버스(Dirk Gevers)는 "성서공회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성서를 적극적으로 반포해 성서 반포 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인쇄 성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성서 출판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성서공회들의 반포 성과

새롭게 설립된 쿠바성서공회는 27만1천 부의 성경과 11만4천 부의 신약성서를 반포함으로써 사역의 시작을 기념했다고 한다.

터키성서공회는 2023년 2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년 대비 성경과 신약성서 반포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성경전서는 2만 부 가량, 신약성서는 3만6천 부 이상을 반포했다고.

인도성서공회는 성경 2백6십만 부를 반포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고, 신약성서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백3십만 부를 반포했으며, 단편 성서는 2백2십만 부를 반포해 전년보다 90%를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파키스탄성서공회는 2022년, 1만1,200부 반포됐던 신약성서가 2023년 거의 12만3천 부까지 늘었다.

대한성서공회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인쇄 성경과 디지털 성경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동 중에는 앱이나 오디오 성경을 이용하고, 집에서는 인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거나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구매력의 한계, 성서공회들의 재정적 어려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파괴되거나 성서 반포가 정부 차원에서 검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경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에 대한 수요는 그 공급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경, 1만 명이 넘는 아이티 학생들의 삶을 밝히다

격동하는 아이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아이티성서공회는 아이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두고, 굳건히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티성서공회는 20곳 이상의 학교에 소책자와 성경을 보급해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성서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티성서공회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신앙이 갖는 힘에 주목하고 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전했다.

또한 아이티성서공회는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갱단의 침입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티에 성서공회가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강조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이티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대한성서공회는 "극심한 빈곤과 폭력 및 최근의 잔혹한 사건들로 씨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티성서공회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주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걸프성서공회, 쿠웨이트 이주민 교회들 지원

걸프성서공회는 쿠웨이트로 대규모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쿠웨이트의 교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4백3십만 인구 중 다양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혹독한 환경, 학대 및 임금 미지불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쿠웨이트 교회들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지만, 지도자들 상당수가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 성서공회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해 교회들을 돕고자 한다고 대한성서공회는 전했다.

지난해 걸프성서공회는 쿠웨이트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를 개최해 암하라어, 타갈로그어, 텔루구어와 신할라어로 된 성경을 반포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에 감사를 표했다고.

걸프성서공회의 사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쿠웨이트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전했다. 김진영 기자

"'3차 로잔대회 후 복음전도 우선성 퇴색' 비판에 동의 안 해"

한국로잔위 사무총장 문대원 목사, 기자간담회서 해명

오는 9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로잔대회 주최 측인 한국로잔위원회(위원장 이재훈 목사)가 최근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로잔대회 7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로잔위 사무총장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담임)는 로잔대회를 소개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로잔대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목사는 "로잔운동의 비전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미전도종족 등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둘째,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운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 교회는 복음 전도의 열정만 있어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신자들의 영적 성숙의 과정이 없다. 세상으로 나가 제자 삼자고 강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목사는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를 세우자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중앙 통제가 아닌 자발적 운동의 형태를 추구한다. 넷째,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사회 전역에 흘려보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총체적 선교론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국제로잔대회가 3차 케이프타운대회 이후 복음전도의 우선성이 퇴색됐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로잔운동의 비전 첫째는 복음전도다. 로잔운동 내 다양한 분과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복음전도를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로잔운동의 네번째 비전에서 말하는 총체적 선교론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문대원 목사는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도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사회참여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 개념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인간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자고 주창하는 '인간화'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해방이 아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WCC는 인간의 사회적 억압에 대한 해방을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며 "가령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가미돼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증오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 목사는 "하지만 제1차 로잔대회는 WCC의 인간화에 반대하며 태동했다. 로잔언약은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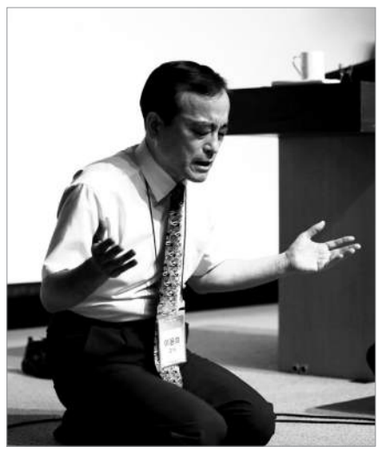
로잔대회 7월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그는 "위 선언에서 로잔대회는 사회참여를 곧 전도와 구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전도와 사회참여를 동전의 양면으로 둘 다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예로 들었다.

그는 "로잔대회는 사회 구조에도 죄가 있으며, 죄와 힘써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괄하는 선교를 추구한다"며 "하지만 로잔대회 내부에도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중 어느 것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하나님의 군대’… 제2차 청년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진행 중

제2차 청년·대학생 지저스 아미(Jesus Army) 컨퍼런스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 기도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15~17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제2차 청년·대학생 지저스 아미(Jesus Army) 컨퍼런스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망수양관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겔 37:10)’라는 주제성구 아래 열리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는 “청년·대학생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은 성령충만과 ‘거룩과 권능의 세대’로 세워지는 수련회”라고 소개했다.

주강사인 김미정 목사를 비롯해 이용희 교수, 강은정 자매, 길원평 교수, 김용삼 대기자, 정유나 자매, 조영길 변호사, 홍준표 간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모든 강사들이 청년들의 영혼 구원과 청년 각각의 부르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평생의 신앙 동지들을 얻는 결정적인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년·대학생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서는 마른 뼈 같았던 청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석자들이 ‘거룩과 권능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50여 명의 아비세대 기도자들로 구성된 ‘여호와 닛시 중보기도팀’이 6개 조로 나뉘어 3박 4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번 성회에서 청년들이 거듭나고, 거룩과 권능 있는 청년 예수 군대로 세워져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통일과 통일선교한국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법원 18일 최종 판단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전원합의체 판결…
양육비 청구·교회 집합 금지 처분 소송도 함께 선고

대법원이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비롯한 3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판결을 내리는 최고 심판 기구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실제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이들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왼쪽부터) 녹색정의당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당사자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를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인정해왔던 공단의 업무 관행과 동성결합·사실혼 관계의 실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단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동성 커플의 권리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양육비 청구 소송과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들 역시 각각 양육권과 종교의 자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친생명 단체가 테러 집단? 美육군 기지 PPT 논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의 포트 리버티(Fort Liberty) 육군 기지에서 사용된 훈련용 프레젠테이션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당 프레젠테이션은 친생명 단체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칭하고, 생명 존중 번호판을 차량에 단 사람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강조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그룹에는 친생명 단체인 전국생명권리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NRLC)와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슬라이드는 낙태 시설 밖에서 여성들을 상담하고 ‘생명을 선택하라’(Choose Life)라는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의 활동도 위협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번호판은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무료로 돕는 임신 보호 센터의 기금 모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출’이라는 제목의 테러 전술을 강조한 슬라이드에는 길거리나 임신 센터에서의 상담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인 낙태 반대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친생명 운동가들이 낙태 시설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 지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친생명 운동가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거나 시위를 벌이는데, 이는 대게 체포로 이어진다.

슬라이드는 또한 모든 나열된 행동들이 낙태 시설을 폭파하거나 낙태 종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암시했다.

캐럴 토비아스 NRLC 회장은 12일 성명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태아 생명을 옹호하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이라며, 친생명 단체에 대한 “완전히 거짓된 사실은 게으른 학문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토비아스 회장은 “5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전국생명권리위원회는 늘 폭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탄해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태아 사망을 장려하고 무제한 낙태를 옹호하지만, 평화로운 친생명 미국인들에게는 ‘테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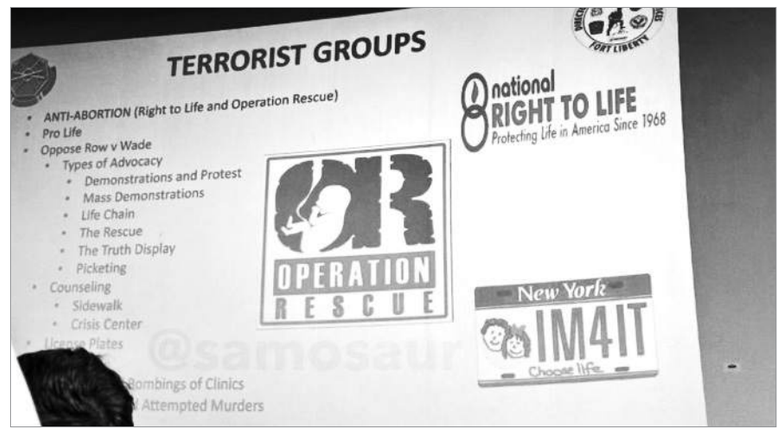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님을 명시한 판결문이 유출된 후, 급진적인 낙태 지지 운동가들이 임신 지원 센터를 파괴하거나 방화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남아 있어, 바이든 행정부 및 법무부의 편향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육군 기지 논란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퍼킨스 회장은 최근 엑스(X)에 “태아 생명을 지지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평화롭게 옹호하며, 태아 살인을 막으려는 것이 테러리스트를 만드는가?”라며 이사야서 5장 20절을 인용하여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했다.

포트 리버티는 같은 날 성명에서 논란이 된 PPT가 XVIII 공수군단, 포트 리버티, 미 육군 또는 국방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이 슬라이드가 브리핑 전에 적절한 승인 당국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 슬라이드들은 포트 리버티의 출입 통제 구역을 담당하는 군인들을 훈련하기 위해 현지 주둔 부대 직원이 개발한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향후 훈련 자료는 현재 국방부의 테러 방지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최근 미국 육군 기지에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이 친생명 단체 두 곳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엑스(X)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고 싶어”

[인터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재조명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감독 이장호

이장호 감독이 자신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현재 북한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락스퍼영화제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노형구 기자

서울 이화장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기독일보 DB

1945년 해방둥이로 1974년 데뷔작 ‘별들의 고향’으로 당대 최다 영화 관객 수를 갈아치웠던 이장호 영화감독은 한국 영화사의 거장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 감독은 이후 ‘바람불어 좋은 날’ ‘낮은대로 임하소서’ 등 리얼리즘 영화를 연출하며 1980년대 상업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거머쥔 감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는 2014년 ‘시선’ 연출 이후 10년 만인 올해 가을 개봉을 목표로 ‘하보우만의 약속’을 제작하고 있다. 이장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독재자로만 알았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예정이다.

길교회 은퇴 장로이기도 한 이 감독은 “중국 영토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역사가 진짜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하보우만의 약속’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라며 “이 영화를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현재 제작 중인 ‘하보우만의 약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구두회사 CEO를 역임했던 김세재 목사가 10년 전 창립한 ‘길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김 목사가 은퇴 이후 목회의 길을 걷고 싶다며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안수를 받고 설립한 교회다. 김 목사의 권유로 ‘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길교회는 창립 이후 구국기도회를 시작했다. 매년 대한민국의 동서남북 한 군데를 찾아 수련회를 열었다. 첫째 해는 독도, 둘째 해는 남해 땅끝마을, 셋째 해는 서해 백령도, 넷째 해는 백두산으로 갔다. 중국 장춘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옆에 허허벌판에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봤다. 그런데 두만강 건너편 북한 함경도 땅을 보자 잡초로 뒤덮힌 민둥산뿐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다.

역사에 대한 자각이 들었다. 개인적 감각으로만 사회를 비판하고 역사를 바라봤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역사가 진짜 역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하보우만의 약속’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다. 이 영화를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러한 편견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속에 오래 머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보우만의 약속’을 제작하기로 했다.”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바라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오랜 유교적 배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전제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조선을 꿈꾸다 역모죄로 붙잡혀 한성감옥에 수감 됐다. 그때 아펜젤러 등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면회했다. 이승만은 그들이 놓고 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다가 ‘시련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광명’을 본 것이다. 이승만을 통해 감옥에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상재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리고 저술한 책이 ‘독립정신’이었다.

이후 감형을 받은 이승만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만주, 연해주 등 중국·러시아 변방으로 넘어간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 유학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윤택함을 직접 경험했고, 소련 공산주의의 폐해를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공간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악착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한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국민의 77%는 남조선노동당을 지지하는 등 공산주의에 호감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1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선회하도록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북한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토지를 몰수하고 무상분배를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농사짓는 땅만 지주들로부터 싼 가격에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안 되는 농민들에게 매년 농사를 짓고 나온 수익 일부를 국가에 할부 방식으로 갚으라고 한 것이다. 이런 농지개혁의 성공엔 당시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에게 농지개혁을 맡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리더십도 작용했다. 하나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택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립될 수 없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건국하신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다. 영화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생각인지?

“영화에서 그대로 밝힐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혁명 때 오히려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학생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여러분께 고맙다.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당시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씨가 미국에서 치료받다가 급사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대통령에 자동적으로 당선됐을 상황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나이가 많았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수하들이었다. 권력에 눈이 먼 그들이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다. 영화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싶다.”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이승만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동시에 다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무엇이고, 영화를 통해 그를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독재자로서 이에 대한 과(過)가 있다. 이를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각자로 대한민국을 오랜 기간 통치한 결과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다고 본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는 누가 뭐래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너무 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에도 그의 이러한 생각이 담겨있다. 오직 나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신념뿐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도만이 아닌 때를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위인을 선택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인도하셨다고 본다.”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기독교와 대한민국 정체성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꼭 대한민국을 두고 얘기한 것 같다. 반도 국가인 미약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40일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의 DNA를 바꾸셨다. 대한민국도 식민지, 전쟁 등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어린이, 청소년 등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겨줘서 대한민국이 부흥을 이루는 기초석이 되길 바란다.”

-일각에선 기독교 신앙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며 기독교 신앙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한다.

“나는 정치와 상관이 없이 역사를 보고 싶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루신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다. 하나님은 핵전쟁에 의해 지구가 멸망되는 등 악마가 성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이 역사의 끝날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역사의 과정 속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다.”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견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결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자유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이 현재는 공산치하에 놓인 암울한 도시가 됐다. 하지만 북한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순교신앙을 견지하고 있다. 장마당과 지하교인들을 통해 민주화 여론이 형성되고 물꼬를 트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뤄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힘입어 미국과 함께 세계 G2 반열에 오르는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장밋빛 결말이다.”

-화제를 바꿔 이장호 감독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다.

“‘별들의 고향’을 만들고 이후 대마초 파동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연예인 다수를 비롯해 저 또한 여기에 연루돼 무기한 활동 정지를 받았다.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했다. 그때 내 심성이 나빠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자각이 있었다. 심성을 지키고자 책을 읽고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980년 명보극장 사장이었던 영화배우 신영균 씨는 기독교 장로이기도 했는데, 그가 만든 신우회에 참여했다. 그때 온누리교회 설립 목사 하용조 목사가 신우회에서 예배와 성공 공부를 인도했는데, 하 목사 설교를 듣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추억과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갑 속에 부적을 넣고 다녔던 죄를 하 목사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부적을 불에 태워버렸다.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당시 개봉을 앞둔 ‘바람불어 좋은 날’이 흥행에 성공했다. 비로소 부적의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신앙이 성장해갔다. 열등감이 사라졌다.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살아있는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장호 감독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체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는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다. 인간의 악엔 희생이 뒤따른다. 그것이 구약시대엔 죄를 지으면 양을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희생이고, 신약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다. 인간은 성경의 역사를 자신의 감각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말이다. ‘의식화’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인간의 자아 의식이 반(反)기독교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의 이기적인 모습이 앞서게 된다. 그걸로 성경을 보려 하니까 해석이 어려워지고 골치 아픈 종교가 돼 버린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형구 기자

배우 신애라 "하나님, 날 가장 잘 아시는 분… 딱 맞는 배우자 주셔"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회 특집에 출연

배우 신애라 집사(사진)가 최근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100회 특집에 출연해 간증했다.

먼저, 최근 자신의 간증을 담아 출간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에 대한 에피소드도 전했다. 신 집사는 "미국에서 기독교상담학을 공부했을 때, 박사 학위 논문을 포기하면서 책 집필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책을 집필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집필 이후 드는 생각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저에겐 은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마음이 가는 대로 쓰다 보니 저의 인생의 여정이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느낄 수 있었다"며 "쓴 글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책 제목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해 주셨는데, 고아사역을 비롯해서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20대 때부터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그녀는 "첫 봉사는 재활원 봉사였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장애우 시설에 봉사를 갔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초반엔 봉사가 어려웠다"며 "연예인 대뷔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었던 저는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1대1 가정 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교육받은 봉사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1대1 나들이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은 온전히 나만 집중해 주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봉사자들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속되기가 어려웠다. 이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신 생각은 '교회가 답'이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보육원을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고아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교회이기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예로 들며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예배에 보내 주시는데, 주일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신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변화되는 모습으로 눈으로 보게 된다"고 했다.

신 집사는 "우려 상황도 생긴다. 아이가 어느 순간 '왜 나는 저런 가정에 없는 것인가'라는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며 "그렇게 자립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 좋은 가정을 아예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좋은 가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가지게 된다"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여름에 성경 캠프를 연다. 성대하게 하는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이것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단체가 아닌 홈스테이 신청을 통해 7일에서 10일을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 가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도 홈스테이 신청 가정이 늘어나 교회를 통해 진행을 했는데,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다"며 "아이들은 가정이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평생에 있어 아이들에겐 마지막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 가정에 대한 경험이 아이들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미국에 갔다 와서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쌓는 시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제가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음엔 사역, 가족, 삶의 즐거움이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1대1 돌봄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거듭 전했다.

이어 "예전에 故 하용조 목사님이 '여기는 다 죄인이다. 들킨 죄인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며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 (저는) 매번 다툼과 넘어짐 속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결심하게 된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징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했다.

신 집사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교회였다. 제대로 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은 결혼 이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라고 했다.

또 남편 차인표 씨와의 사이에 대해 "요즘 유독 많이 싸운다. 예전에는 싸우기가 싫어 포기하기를 반복했다. 지레 포기하고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컸었다"며 "미국에서 기독교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나의 문제임을 알게 됐다. 건강하게 싸우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기도에 대해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바란다. 저는 요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제목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만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에 대해 "큰 딸이 20살, 막내가 18살이 되어 사춘기가 끝나가는 중이다.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 기도만큼 많이 한 기도가 사춘기 기도"라며 "착한 아이들이지만 사춘기는 사춘기여서 어려움이 있었다. 가르치려 하기보단 중요한 몇 가지만 지켜준다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심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자녀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에 대해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다. 저는 신생아 입양을 했는데, 직접 낳아 기르는 아이와 똑같았다"며 "오로지 나에게 의존하는 작은 존재를 보살피며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

신 집사는 "계획 없는 게 계획이다. 최근 강의 요청이 많았는데, 오늘을 살자. 오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 곁은 떠나갈)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기를 기도한다"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다. 영원하며, 변함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

장요한 기자

"성경 읽는 기독교인, 시민 책임의식 가장 중요시해"

미국성서공회(ABS)가 2024년 성경 현황 보고서에서 성경을 읽는 실천적 기독교인들이 시민 옹호와 참여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경을 읽는 실천적 기독교인들이 다른 시민들보다 시민 및 정부 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옹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의 66%는 시민 및 정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48%는 시민 및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42%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인식, 옹호, 순종과 같은 모든 면에서 성경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시민 책임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Bible Disengaged) 어느 정도 성경을 받아들이는 유동적 중간층(movalble middle)을 앞지른다.

모든 기독교인 중 성경에 가장 참여하는 그룹(Scripture Engaged)은 시민 및 정부 문제에서 옹호와 순종보다 인식을 더 높게 평가했다.

2024년 보고서의 네 번째 장은 7월 11일에 발표되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말씀의 여러 측면을 표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실천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민자를 환영하고, 타 인종 사람들과의 우정을 맺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최근 3년간 감소했음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분위기가 분명히 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들은 물론 이민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등에 자신의 상황을 추가할 것이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실천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에 큰 변화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실천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은 2022년 6점 만점에 4.3에서 2024년 3.9로 감소했다. 다른 인종과 친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은 2022년 4.7에서 올해 4.5로 줄었으며, 환경 보호는 2022년 4.7에서 2024년에는 4.6으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모든 집단이 지난 몇 년보다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감소는 실천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크다"며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실천적 기독교인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급증했던 인종 간 포용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후 1~2년 동안 대기업들이 다양성에 헌신하며, 지역사회들이 동상 철거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2년간의 추세선은 관심이 줄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카고 대학교 NORC 연구 센터는 2024년 1월 4일부터 23일까지 연구를 진행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아메리스피크(AmeriSpeak) 패널의 성인 9900명 이상에게 연락을 취해 그중 2506명의 온라인 인터뷰 결과를 취합했다.

미국 성서공회는 올해 12월까지 매달 연구의 각 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발표는 인공지능(AI), 웰빙, 교회, 희망, 고난, 외로움 및 자선 활동과 성경 참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기감 선교국, 진천교회서 '전도하는 제자' 세미나 개최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국(총무 태동화 목사)은 충북연회 진천지방회 진천교회에서 '전도하는 제자' 전도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북연회(감독 박정민)가 후원,, '웨슬리 전도학교'가 주관했다.

세미나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전도세미나로 구성됐다. 개회예배는 이찬우 감리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11대 감독 조기형 목사가 '전도, 자랑 아닌 당연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진 전도세미나는 조재진 목사(산곡교회)와 이상주 목사(구로동교회)의 강의, 그리고 허경자 장로(제천제일교회)의 간증으로 진행됐다. 조재진 목사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며 "전도의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전도자로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아가 교회로 인도하고 정착시키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해야 하며, 충분한 관심과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주 목사는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다. 꾸준함 속에서 길이 생기고 전문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 현장의 모습. ⓒ기감 선교국

이어 "언론들이 일부 교회들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마치 사회의 악처럼 몰아가지만, 교회만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해야 한다.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했다.

허경자 장로는 전도의 열매를 간증하며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태동화 총무와 이재훈 연회 총무의 인사, 박정민 감독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선교국은 하반기에도 연회별로 전도세미나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안산시, 멈췄던 종교 화합의 장 열어… 종교지도자협의회 재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내 4대 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안산시 종교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산시 종교지도자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역 내 종교 간 화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재개됐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함께 ▲유선오 안산기독교총연합회장 ▲김학중 꿈의교회 목사 ▲월광사 보광스님 ▲연화사 태휴스님 ▲최바오로 고잔성당 주임신부 ▲오영철 고잔성당 평신도 총회장 ▲이시은 원불교 수원지구장 ▲방길튼 원불교안산국제교당 교무 등 지역 종교 지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토의와 각 종교가 가진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시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대통합이라는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분기별로 종교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종교인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인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가운데)과 안산지역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최근 안산시 종교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한동대, 케냐 ANU와 협력해 STAR 프로그램 성료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케냐 아프리카 나자렌 대학교(ANU)와 협력하여 'Startup Training for African Revival(STAR)' 프로그램을 성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23년 2월 케냐 세인트폴 대학교에서 열린 창업교육훈련에 이어 기획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즈니스 지식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창업교육 훈련 캠프 기념 사진. ⓒ한동대

캠프에는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의 이상화, 최혜봉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기업가 리더십, 그래픽 인식,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효과적인 시각화, MVP 제작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ANU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및 IT 역량을 키웠다.

아프리카 나자렌 대학교의 폴 카헤냐(Paul Kahenya)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이 크게 성장했고, 향후 케냐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이끌창업자들이 배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네스코 유니트윈(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은 선진국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개도국 대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지원하고 지식 격차를 줄여 개도국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19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창설됐다.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가 2007년 최초의 유니트윈 주관 대학으로 지정돼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여행' 온라인 사진전 공개

굿네이버스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여행(지구를 구하는 나만의 여행)' 온라인 사진전을 공개했다.

'지구여행'은 일상 속 '나만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실천활동에 참여하며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 캠페인이다. '지구여행' 온라인 사진전은 ▲지구여행의 시작, 에티오피아 ▲기후위기, 그리고 아이들 ▲지구여행자의 꿈, 지속가능한 미래,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홍보대사 배우 신혜선과 함께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온라인 사진전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4월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배우 신혜선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만나 산림 보호를 위한 나무 심기, 양묘장 생산조합원 만남, 고효율 스토브 체험 등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경험한 바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5월 31일부터 8일간 서울시 성동구 카페 할아버지 공장에서 '지구여행' 오프라인 사진전을 개최했다. 배우 신혜선은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후원자를 대상으로 일일 도슨트를 진행하며 지구여행 후기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전했다. 온라인 사진전에서는 배우 신혜선이 진행한 오프라인 사진전 일일 도슨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디오 도슨트와 함께 주요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지구여행' 온라인 사진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아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가뭄과 홍수 등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아동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여행(지구를 구하는 나만의 여행)' 온라인 사진전을 공개했다. ⓒ굿네이버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여행'을 전개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개최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앞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달 서울, 대전, 울산, 대구, 전남 총 5개 지역에서 지역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4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른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2023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지역대회에 참가해 발표 중인 아동의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개최되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대회에서 투표로 선발한 지역대표 아동과 전년도 의장단 등이 전국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지역대회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 울주군청(울산), 대구어린이세상(대구)에서 진행되며, 광주·전남 지역은 26일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열린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0세에서 15세(2014년생~2009년생) 아동 총 200~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대회 참가 아동들은 '기후변화 속 아동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그룹별 정책 토론을 거쳐 정책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동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하며, 지역별로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울주군, 대구시, 광주시가 후원한다.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노키즈존 철폐와 예체능 교육 강화 등 정책으로 제안하는 14개의 결의문을 채택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아동총회에서는 작년 결의문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 결과가 소개된다.

대전·세종 지역대회 참가 아동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 문제를 살피고,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남 지역대회 참가 아동은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행사가 지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승연 기자

교회 등 도움으로 무료 수술받은 6·25 참전국 심장병 어린이들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 프로그램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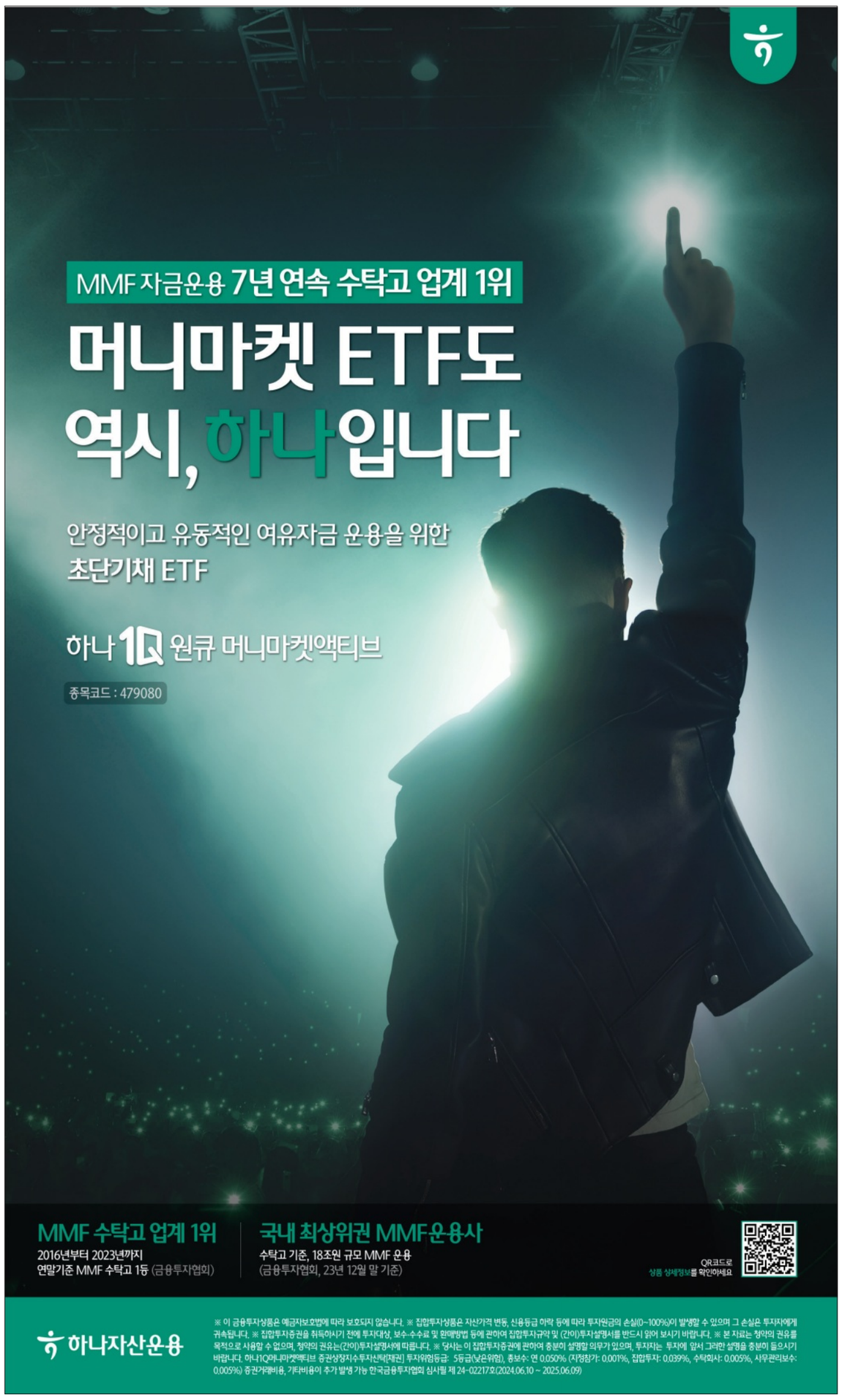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의 손자 테카렌 메릿 베주아엣(7세)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어린이들이 지난 6월 24일 우리나라에 입국해 심장병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건강을 회복한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선물을 건넨 뒤 고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했다. 어린이들은 밝게 웃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배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 무료 수술은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가 한국전쟁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앓은 이들의 수술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부천세종병원,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한국늘사랑회 등이 항공료, 국내체류비용, 수술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이날 예배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의료분과위원장 윤호현 장로를 비롯해 김충걸 세종병원 고객지원 이사,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신광철 회장 등이 함께했다. 윤호현 장로는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어린이들은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국내서 무료 수술을 받은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비싼 신발, 비싼 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동양선교교회 54주년 기념 김동호 목사 초청 부흥사경회

◈존재 가치는 소유에 달려 있지 않아...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

창립 54주년을 맞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People & Peace link 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부흥사경회를 진행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뷰티풀 랜딩〉,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동안교회(1991년~2001년), 높은뜻 숭의교회(2001년~2016년)를 개척하고 목회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의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받는 축복에 관해 나누었다.

부흥사경회 두 번째 날인 토요일 오후 6시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동호 목사는 그의 어린 시절과 오늘날의 환경을 대비해 이야기하며 물질적 삶의 변화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전기도 나오지 않았다. 51년생인 저는 신장도 하나 제대로 못만들 때 태어났다. 저희는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포니차를 주셨는데 비가 오면 조수석에 물이 고여서 옆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놓고, 창문을 내려서 물을 버리며 차를 타고 다녔다.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 환경 조사서’가 있었다. 그 설문지, 라디오, 선풍기, 전화, 냉장고, 그때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부자였다. 선풍기가 있으면 부자였다. 텔레비전이 동네 하나 있던 시대였다.”

그는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대답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돈이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을 주지 못한다며, “부자들이 돈 벌어서 담을 쌓고 철망을 친다. 많이 편해지는 것만큼 불안해진다. 담을 높인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돈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돈의 한계. 저는 돈의 한계를 배웠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에리히 프롬을 인용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었다.

“에리히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는 사람인데, 우리가 대부분 거기 속해 있다. 존재형은 소유를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인간 답게 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다.”

“92년도 미국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당시 한국 아이들이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비싼 신발을 사고,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내세우려 한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발견할 때 행복해진다.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되나? 아니다. 사람 나름이다. 예수 믿는데 가난한가?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도’의 의미는 있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예수 안 믿고 대통령 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를 높아지는 길이 없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온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

김동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마이크에는 사람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존재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다. 모든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나온다. 잘 살려면 자기 존재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존재 목적의 원칙이 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 존재의 목적은 타자에게 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부여한다.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가,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는가?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며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삶

아내와 손편지를 주고 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77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 각오는 해야 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다.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었다. ‘편지 쓰는 마음으로 살아서 내 삶을 당신에게 줄게’ 그게 약속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저는 처음에 같은 줄 알았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이다.(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높은 뜻 씨앗 스쿨을 방문할 때마다 아르마니 향수를 뿌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가 설립한 ‘높은뜻 씨앗 스쿨’ 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려 했는지 나누었다.

“그리스도께 쓴 편지와 같은 표현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 버킷 리스트였다.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세웠다. 갈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도망가고 안기지 않으려 했는데 갈 때마다 안아줬다. 꽉 안아줬다.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그러는지 진심으로 그러는지 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와서 안겼다.”

“제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씨앗 스쿨을 갈 때면 향수를 뿌리고 갔다. 어느날 학부형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이가, ‘엄마, 할아버지 냄새난다’며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삶에서 냄새가 나야하지 않겠는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동호 목사는 음악, 특히 성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며, 97년도 동안교회를 건축할 때 음향에 정성을 기울였다며,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표현된 세례 요한을 언급하며, 크리스천 사명은 ‘예수의 스피커’라고 말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변성기를 잘못 보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지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딱 두 가지만 돈을 아끼지 않았다. 첫 번째는 설계비였다. 안정성,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또 돈을 많이 쓴 게 있었다. 음향에만 10억을 넘게 썼다. 여러분, 97년도 당시 교회 음향에 10억 쓴 교회 없었다.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생각했고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올 때 찬양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음향회사 회장이 한국에 왔는데, 무슨 교회가 그 시스템을 쓰냐, 보러 오셨다고 한다. 마이클 잭슨이 썼던 시스템이었다. ‘설교만 잘하면 되지 명필이 붓가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편한 소리가 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말씀의 전달력을 높인다.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설교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 평생 듣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아끼는 한이 있어도 음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음성을 잡음 없이 전달하는 스피커 되고 싶어

“세례 요한은 스피커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스피커이다. 예수님이 스피커가 맘에 안 드는 것이다. 시끄럽고 웅웅거리고, 다른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았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그에게는 소리가 났다.”

과거,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했던 사실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교회 원로 제도를 없앴다. 제 나이에 목회 밖에 못하는 사람이 70 넘어서 150만원을 버는 것 어렵다. TV를 보는데 노인 택배에 대한 다큐가 나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용해서 지하철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 평균 한 달 80만원을 번다. 저것 하면 되겠구나. 연금이 깨지면 택배하러 나갈 것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디 한 기자

21차 북한자유주간,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헌화식 진행

제21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9일 오후1시30분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식이 진행됐다.

헌화식에서는 전 북한군 출신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통일을 위해 결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 소속 탈북자들이 헌화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먼 이국 땅에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면서 “미군 전사자는 36,634명, UN군 전사자는 628,833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21차 북한자유주간 3일차 행사의 일환으로 9일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헌화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자유북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사진촬영 이벤트 ‘청춘사진관’ 가든그로브로 이전

센터메디컬그룹의 ‘무료 사진 촬영’이벤트가 뜨거운 호응으로 “청춘사진관”이란 이름으로 새로 단장하였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가 아니어도 만 6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당 이벤트는 7월부터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에서 장소를 마련하였다.

장소는 기존 6월까지는 소스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지만, 장소를 옮겨 7월부터는 가든그로브 부근의 지역 시니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7월 12, 26일 두번에 진행되는 청춘사진관은 전화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청춘사진관’ 이벤트는 활용도 높은 독사진과 부부 촬영 중 선택하여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촬영된 사진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화가 가능한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아 제공하거나, 직접 센터메디컬그룹에 액자에 담아드리는 사진을 픽업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청춘사진관’은 예약 신청만하면 시니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Walk-in은 참여 불가하며, 신청 문의는 간단하게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888-847-3098)

김민선 기자

“현대교회 목회적·선교적 회복은 ‘세례의 본질’ 회복부터”

김영심 대전겨자씨교회 담임목사, 성경에 근거한 ‘세례의 본질과 선교적 함의’ 강조

현대교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늘날 많은 성도의 의식 속에 구원의 수속 정도로 전락한 ‘세례’의 의미와 위상을 복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겨자씨교회 김영심 담임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와 선교의 중심축에는 세례가 자리하고 있다”라며 “목회와 선교의 변질에는 세례의 변질이 수반되는데, 역으로 목회와 선교의 회복도 세례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한 김영심 목사는 박사 학위 논문 ‘세례의 본질과 선교적 함의: 재세례파를 중심으로’에서 세례의 본질 회복과 적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논문은 ‘예수의 세례와 선교’(리버티리)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출판됐다.

김 목사는 이 책에서 세례의 본질과 목회적, 선교적 의미를 ‘선재(先在)적 텍스트 상황성’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선재적 텍스트 상황성’에 대해 김 목사는 “교회사적 집단에 내재된 사상을 단순히 인정하는 방식과는 전혀 별개의 방식”이라며 “상황에 텍스트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지닌 상황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곧 컨텍스트의 상황을 ‘선재된 상황화’로 읽은 후에, 그 맥락을 우리 시대의 실현 가능한 ‘공존의 상황성’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성서에 나타난 세례의 예형으로, 구약은 세례의 기원을 ‘창조 원리’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접근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구분하여 접근한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세례의 기원은 이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 1:15)도 궁극적으로 ‘선재된 텍스트 상황화’로서, 창세기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교회사에 나타난 세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선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예전으로 갖추어지고, 순교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며 “중세교회에서는 제식화와 형식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종교개혁 시기 루터와 칼뱅의 세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세례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함께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그 한계도 분명히 제시하면서, 세례의 본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인과 교회, 선교에 적용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김영심 목사는 특히 “‘재세례’(αναβαπτιζω)라는 헬라어 용어에서 ‘아나/아노’(ἀνα/ἀνω)는 ‘다시’(again)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뿐 아니라 ‘위로부터’(up, above)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례의 기원이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됐으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에 임하다가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신앙적 순수성과 절차상 허락하는 목회적 결단으로 실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위’(ἀνω)로부터 비롯된 선교적 결단에 근본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세례’라는 말은 ‘세례’가 갖는 원천적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심 목사가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초대교회의 세례는 순교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
사도 바울에게 세례는 전인적인 삶의 일치이자 표지

재세례의 ‘아나’는 ‘다시’뿐 아니라 ‘위로부터’ 의미
세례 이후 부단한 실천과 성화의 과정 가야

이런 맥락에서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우상숭배로 돌아섰다가 되돌아온 성도, 또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온 성도, 아예 신앙의 출발을 이단 혹은 사교적 터 위에서 시작하고, 어떤 변화의 과정도 없이 정통교회에 스며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도 될까? 김 목사는 “정통한 세례의 어떤 경험도 갖추지 못했다면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으로서, 또 ‘전인적 삶의 변화’를 위한 이정표로서 ‘다시, 위로부터’ 받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봤다.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목사는 “세례를 포함한 성례는 목사라는 직제의 명확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세례와 성례는 목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중요한 요소”라며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자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의 성육신 사역을 완성해 갔다. 바울은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철저히 변화된다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또한 “바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는 제식화나 형식화된 의례가 아닌, 전인적인 삶의 일치이자 표지였다”며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자신의 갱신된 삶이 선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례자는 세례에 대한 투철한 갱신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수세자의 변화와 갱신된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심 목사는 구약에 나타난 갱신 또는 재생, 재창조로의 세례 모티프로서 창세기의 ‘홍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 ‘홍해 도하 사건’을 소개하며 “세례를 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베드로전서 3장 20~21절은 창세기의 ‘창조의 물’을 세례로 이해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받은 세례를 받고’라고 말했다”라며 “바울은 자기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넌 체험을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로 보았고, 구름 기둥과 홍해를 건넌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광야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봤다. 곧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활을 시작했음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지만, 많은 사람이 인내와 절제를 이기지 못해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세례를 받더라도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세례에 대한 부단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 세례는 죄가 제거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표지로서 평생에 계속되어야 하는 과업이고, 그 완성은 마지막 날 부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때 하나님은 세례가 완성되기까지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재창조하신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심 목사는 “현대교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목회적, 선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점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위상의 복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세례의 회복을 통해 거룩하고 전인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운동이 한국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한 “세례와 성찬은 먼저 계신 예수님과의 연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례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바람직한 성례로 거듭나지 않은 이단 교회나 집례자에게 성찬과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선교칼럼 왜 이주민 시대의 선교인가?(2)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주민 선교

김영휘 목사

이번에는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을 보는 데에는 구속사적, 언약적, 선교적, 다문화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편향적이고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중 모든 관점을 통합하는 ‘총체적 시각’(Holistic Perspective)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는 바른 신학과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념 중심의 이론이 아닌, 현장 중심 혹은 실천 중심인 ‘몸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몸의 신앙을 가질 때 선교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주민 선교가 한갓 흘러가는 시대적 화두요, 과시적 이벤트(event)로 끝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주민 시대의 선교인가’에 대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총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가장 기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재앙인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있고, 그때만 해도 그들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적,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심을 보게 된다(창 12:3, 롬 11:11~12, 계 5:9~10).

앤드류 윌스는 ‘기독교 역사 속의 이주’라는 그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이주와 그 이후 이방인의 구원 역사(갈 3:8)와 포로 시대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사 49:6)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의 확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경을 총체적인 이해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장마다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고(마 28:18~20, 막 16:15, 눅 24:47~48, 요 20:21), 더 나아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땅끝에 흩어진 종족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마 24:14, 행 1:8).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15개의 지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였는데, 흩어진 종족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가 된 최초의 사건이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주신 선교적 명령(창 12:3)을 다시 회복하고 활력을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선교적 명령을 등한히 했으므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다(행 5~6장, 행 8:1~8). 그리고 결국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행 11:19~21, 13:1~3)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교적 명령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로마) 복음을 전하는 미완성의 역사적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행 28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계속>

◈김영휘 목사
KWMA 운영이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미 교계 "트럼프 전 대통령, 살아 있어 다행… 하나님께 감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현지 목회자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안도를 표하며 국가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텍사스주 그레이프 바인에 위치한 펠로우십교회 에드 영 목사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을 떠나, 차이를 폭력 행위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되게 하시길 바란다. 이 나라가 주님의 진리와 지도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무고하게 살해된 참석자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가족 중심의 공공정책기관인 신앙과자유연합 창립자이자 회장인 랄프 리드는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 워싱턴 포스트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공격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X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취약한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같은 날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정말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총격 사건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총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굴 오른쪽에 피를 흘리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 집회에서 총격범에게 살해당한 남성과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의 짐 데일리 회장은 이날 CP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살해당한 참석자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메리카퍼스트폴리시인스티튜트(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산하의 센터포아메리칸드림(Center for American Dream) 회장이자 스피크포라이프(Speak for Life) 설립자인 알베다 킹은 CP에 공유한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20세 남성이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킹은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에서 암살당한 고(故)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조카이기도 하다.

킹은 "오늘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로 드러난 증오에 대해 애도한다. 비밀경호국의 용감한 남녀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린다. 오늘 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국가가 기도, 용서, 비폭력, 그리고 단결에 헌신할 때"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있는 하베스트 교회(Harvest Fellowship Church) 설립자인 그렉 로리 목사는 소셜미디어에 사건 당시 사진을 공유하고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총에 맞은 직후의 사진이다. 이것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였다. 비극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총격범도 사망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를 살려 주셨다"고 적었다.

기도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유튜브 영상 캡쳐

기독교지도자회의 의장이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위원으로 두 번 임명된 복음주의 지도자 조니 무어 목사는 sns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모든 지도자를 보호하시기를 기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순전한 악행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협회 부회장인 토니 수아레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공유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편 91:1-2)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있는 프리채플교회(Free Chapel Church)의 젠테젠 프랭클린 목사는 13일 밤 기도 집회를 이끌기에 앞서 성도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있는 프레스턴우드교회(Prestonwood Church)의 잭 그래함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국 국민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둠의 모든 적에 대한 승리를 거두시길 바란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니다. 우리는 어둠의 사악한 행위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미국인이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터키, 예배 공간 신청한 교회 요청 거부… 기독교 탄압"

터키 남동부 주요 도시 중 한 곳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 2019년 설립된 디야르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은 새로운 예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로부터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야르바키르 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회중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반복적인 요청에도 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가 전했다.

이 단체의 세계종교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문제의 토지는 종교 용도로 특별히 지정되었지만, 정부는 교회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종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박해는 종교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터키의 국제적 인권 의무도 위반한다.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디야르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 ⓒADF International

ADF의 지원을 받는 재단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기존 도시 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종교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국제 ADF의 터키 수석 변호사인 오르한 케말 쳉기즈는 이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종교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묘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터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예배 장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수많은 법적, 실질적 장벽에 직면한다"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터키의 종교 차별 패턴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의 이슬람화와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장벽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천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터키는 주로 무슬림이 대다수이며 기독교인은 약 17만 명이다. 법적, 관료적 장애물은 기독교인에게 흔한 도전이 되었고, 종종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었다.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가 2018년 이후 국가 안보를 구실로 터키에서 추방됐다. 추방에는 종종 N-82와 같은 모호한 보안 코드가 포함되며, 공공 질서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지난 6월 터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외국 기독교인 노동자 추방을 지지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의 전환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터키 당국이 추진하는 종교 간 대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면서 이 나라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EU, 순회의장국 헝가리 주재 회의 거부…'종횡무진' 총리 탓

유럽 외교 소식통 "보렐, '공식' 외무장관회의 개최 고려"
오르반 주최 회의 날 EU 대표가 회의 만들어 불참 유도

유럽연합(EU)이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순회의장국을 맡은 헝가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단체로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복수의 EU 외교소식통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다음 달 28~29일 '공식적인' 외무장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독일과 프랑스 등 대표와 논의됐고 오는 17일 공식적으로 EU 27개 회원국 상임대표에게 제시될 전망이다.

이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소집한 외무장관회의와 같은 날짜로 헝가리 주재 회의에 단체로 불참하면서 헝가리를 배제한 나머지 EU 차원의 결집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관은 "같은 날 보렐 대표가 여는 공식 외무장관회의가 있다면 EU 회원국 장관은 헝가리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관은 "헝가리 회의를 거부해 다른 외무장관이 헝가리가 EU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고 자칭 평화방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았다. 이는 다른 26개 EU 회원국 지도자와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며 "많은 외무장관은 또 다른 오르반 총리의 선전 쇼에 소품이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의장국을 맡은 나라가 세계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오르반 총리의 돛에서 바람을 빼려는 의도로 훨씬 더 큰 모욕"이라고 분석했다.

EU 차원에서 이 같은 반(反)헝가리 행보는 친(親)러시아 성향 오르반 총리가 충분한 협의 없이 EU 순회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EU는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지위 박탈을 거론하는가 하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보렐 대표는 순회의장국이 EU를 대표해 외교를 펼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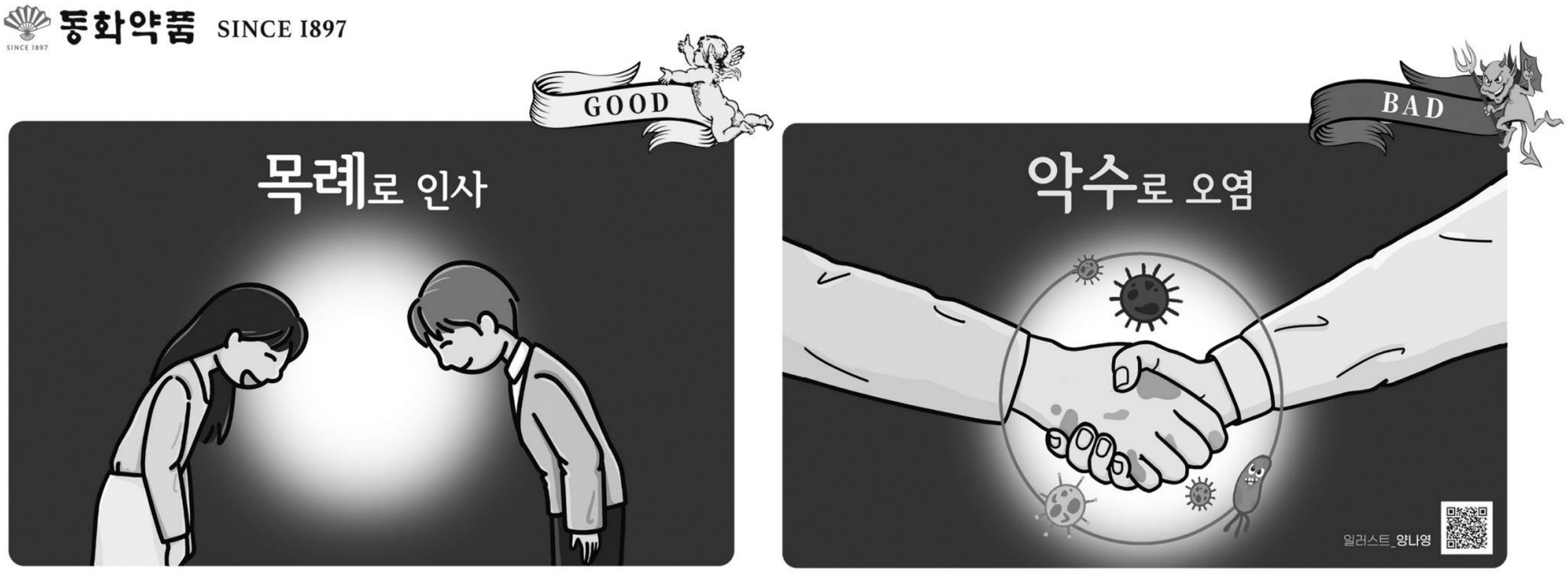
아울러 8~9일 열린 산업장관 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장관과 EU 집행위원이 불참하는 등 EU와 회원국 상당수는 헝가리에 반대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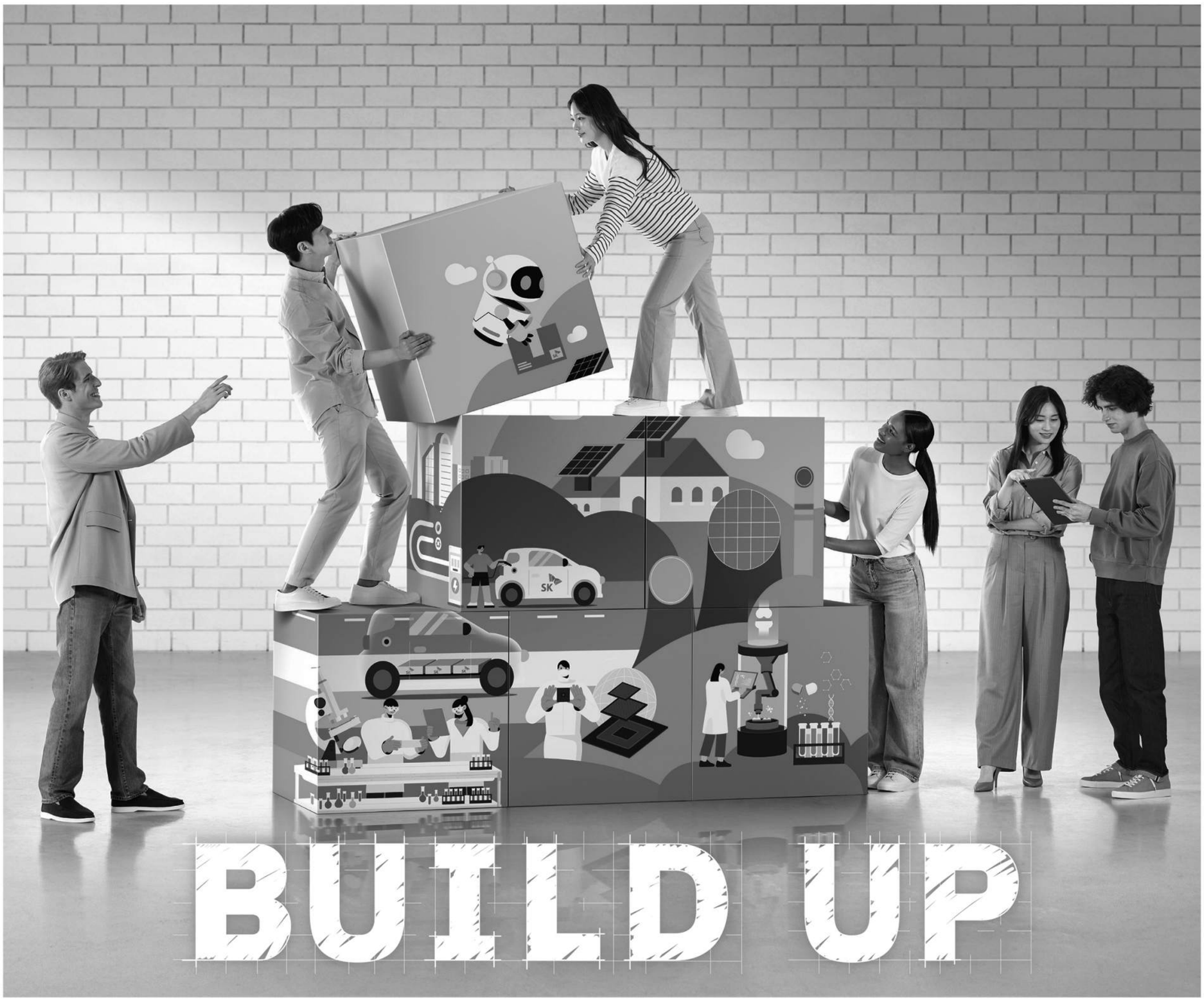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EU는 헝가리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EU 회원국 상당수는 오르반 정권 아래에서 헝가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역행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헝가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관련 없는 분야의 EU 기능을 방해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명동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N°20 건강한 인사법

동화약품 SINCE 1897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A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SK

트럼프, 총격 사건 이틀 만에 전당대회 등장 "건재함 과시"

귀에 거즈 붙인 채 1시간 체류… 지지자들 "Fight" 외치며 열렬한 환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부상을 입은 지 불과 이틀 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오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다.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중 총격을 당해 피를 흘리며 대피했던 트럼프는 이날 오른쪽 귀에 하얀 거즈를 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8시 58분경 대회장 스크린에 트럼프의 모습이 비치자 현장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트럼프는 오후 9시 1분경 단골 주제가인 '갓 블레스 유에스에이(God Bless the USA)'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천히 입장했다. 쏟아지는 함성에 오른손을 들어 화답하며 귀빈석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는 이날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JD 밴스 상원의원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대회장의 열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공화당원들은 "USA"를 외치다 이내 "FIGHT, FIGHT, FIGHT"를 연호했다. 이는 트럼프가 총격 당시 외쳤던 말로, 지지자들은 이를 되풀이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에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고, 곧이어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트럼프는 이날 직접 연단에 오르거나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지는 않았다. 대신 약 1시간 동안 전당대회장에 머물며 연사들의 발언을 지켜봤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은 밴스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선정된 후 처음으로 트럼프와 나란히 선 모습을 보인 날이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정족수를 확보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갖췄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 대권을 향한 당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이번 등장은 암살 시도라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의지와 지지 기반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총격 사건 이후 예정대로 강행된 전당대회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폭력 방지와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식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거즈를 붙인 채 15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여론 증가… "미국 안보 보장 신뢰 흔들려"

FT "북한-러시아 관계 밀착,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한국 안보 불안 고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각) 대한민국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FT는 이를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했다.

FT는 대한민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1001명 중 66.0%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60.2%)보다 5.8%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44.6%로, 지난해(33.8%)보다 10.8%p 더 높았다. 이는 주한미군 지지율(40.6%)보다도 높은 수치로,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FT는 이러한 여론 변화의 배경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한미 동맹에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번째 대통령 임기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 핵무기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며 "사람들은 트럼프의 복귀를 두려워할수록, 안심을 위해 핵무기에 의지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소장인 토비 돌턴은 "한국에서 핵무기 찬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한 것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맹국은 결코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팀슨 센터의 레이첼 민영 리 선임 연구원은 "핵 옹호자들이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헌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더욱이 북한을 격려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윤식 기자

북한 쿠바 주재 외교관 망명… '한·쿠바 수교 저지 임무' 맡았던 인물

리일규 참사관, 가족과 함께 지난해 11월 한국 입국… '김정은 표창장' 받은 엘리트 외교관

북한 쿠바 주재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일규(52) 정치 담당 참사(참사관)가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동반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참사는 1999년 북한 외무성에 입부한 후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직을 수행해왔다.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형제국'으로 여겨온 쿠바와 한국의 관계 개선을 막으려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올해 2월, 쿠바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리 참사는 북한 엘리트 외교관으로서 주목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되어 국제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관 ⓒ영상 캡처

리 참사의 망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외교관,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0명 안팎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체제의 내부적 균열을 시사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쿠바와의 관계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리 참사의 망명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가진 외교 정보와 내부 기밀들이 한국 정부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대북 정책 수립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리 참사와 그의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리 참사의 망명이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윤 대통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 북핵 위협에 기민한 대응 가능"

NATO 순방 성과 강조… "러북 군사협력 규탄" 등 국제사회 공조 확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간 핵억제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NATO와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NATO 간 정보 공유'와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특히 "감항인증을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특히 NATO 정상회의와 인태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 규탄'이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용국 기자

정부, 전공의 대량 이탈에도 22일부터 하반기 모집 강행

전공의 대다수 무응답 상태… 의료개혁 논의 지속 방침

정부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업무 복귀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통해 발표되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않은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5일 정오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 3756명 중 단 1155명(8.4%)에 불과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1만506명 중 86명(0.82%)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본은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의개특위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 시 헌법소원 예고

여당, "위헌법률" 비판하며 민주당과 정면 충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강행 추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규정하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더 나아가 "만약 거대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추진 중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서,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재정건전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야당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금리 하락에 가산금리 인상 효과 반감

가계대출 급증세 지속, 금융당국 고심 깊어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으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2.89~5.64%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달 초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가산금리를 0.05~0.2%포인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결과다.

국민은행의 경우, 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으나 실제 금리 하단은 3.06%로, 인상 전 3.00%에서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신한은행도 전날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올렸으나, 금리 하단은 2.91%에서 2.89%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금융채 금리의 하락세에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융채(은행채) 5년물 금리는 3.347%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 대비 0.04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16일부터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6.554%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5.16%, 우리은행은 연 4.69~5.89%로 전날보다 코픽스 변동폭만큼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상황에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 증가세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대출 증가세를 금리 인상으로 잠재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대출 한도를 비롯해 더 강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08조 5723억원,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 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7월 들어서도 11일까지 약 열흘 만에 1조8738억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과 맞물려 그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대선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나래 기자

한은 "美소비 둔화로 우리 소비재 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유럽향 수출은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이현아 과장 등 4인이 작성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미국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했던 미국 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초과저축 소진, 취약가계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비가 금리에 민감하고 고가인 내구재를 중심으로 당분간 약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근로소득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이 낮고, 고소득층의 양호한 소비여력, 미 연준의 금리인하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가 단기간 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지역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로지역의 소비 위축은 미국보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유로지역 경제구조와 에너지·식료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직접 노출된 점도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최근 유로지역 소비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 전환했고, ECB(유럽중앙은행)의 점진적인 통화긴축 완화가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고민지 과장은 "그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던 대미 소비재 수출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양호하겠지만 증가세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부진했던 대유로지역 수출은 유로지역 소비와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경우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래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세종시교육청에 추모공간 마련

세종시교육청 1층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이 추모공간은 16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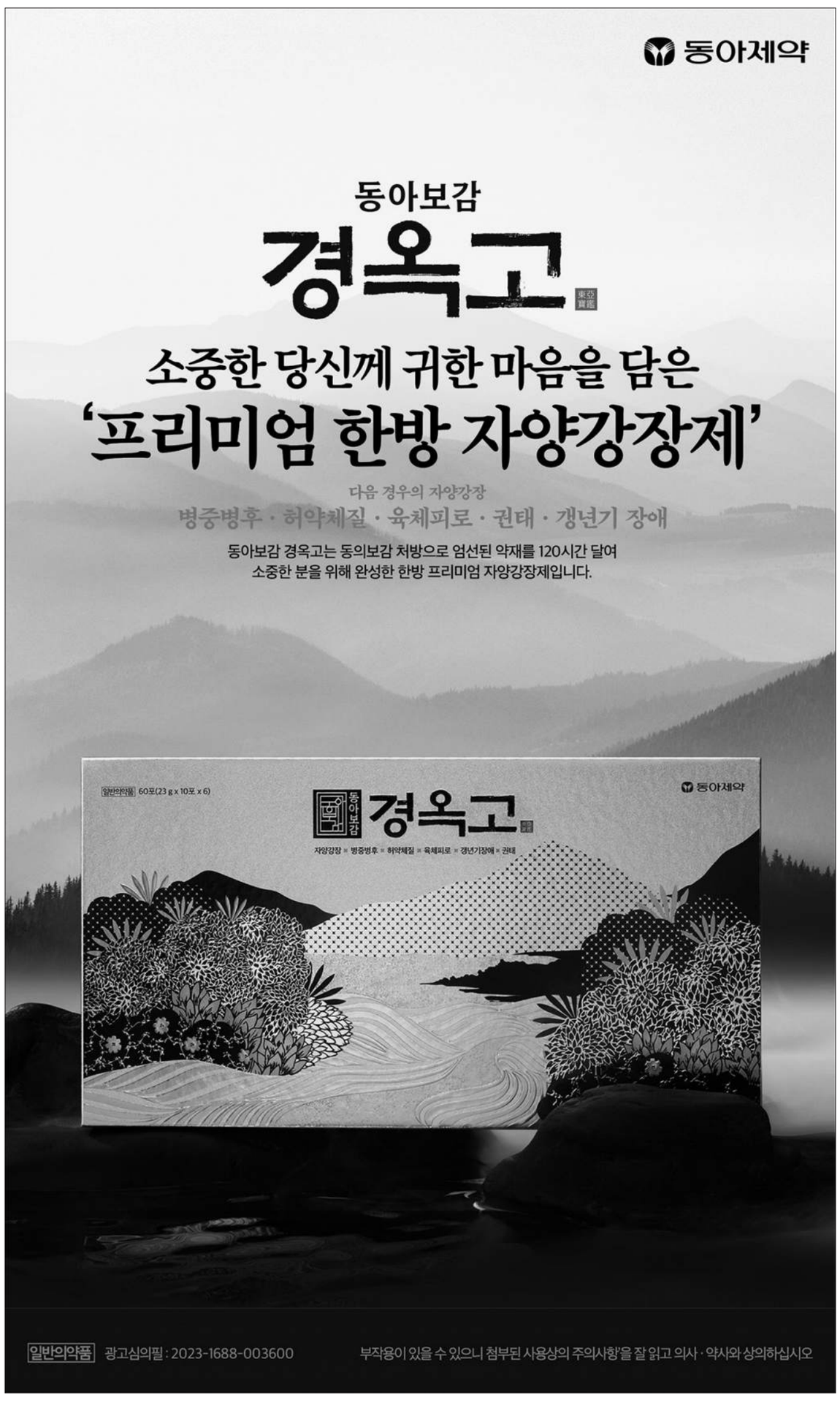
추모공간은 전교조 세종지부, 새로운학교 세종 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등 3개 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 2대에 추모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고 있다. 특히 버스 광고는 교사들과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추모공간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추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날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방명록에 "외로운 섬으로 내몰려 견디지 못하고 먼저 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적었다.

추모공간을 찾은 교사들도 방명록에 애도의 글을 남겼다. "서이초 선생님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 나은 교육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억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였을 가엾은 청춘을…기억하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선생님 그곳에서는 편히 계시길"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추모 행사를 주관하는 3개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경 시교육청 추모공간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세종교사노조는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추모제에 참석할 계획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마련한 여러 대책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초, 서이초 교사 순직은 인정됐지만 관련자들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나래 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야

본문: 롬 13:1~7, 신 8:1-20, 마 22:15-22
설교: 양무리교회 최부옥 목사

오늘은 강림 후 여덟째 주일이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고, 후덥지근한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번지기 쉬운 질병들에도 대비하는 등의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때이다. 이런 중에 나라는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의 무분별한 범죄적 행태들로 인한 국회의 국정조사 건으로, 정치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의 지수도 급증했다. 부디 이 땅에 성숙한 정치가 자리하여, 국민이 보다 편안히 살게 되는 시절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성령강림절기가 깊어진 이 주일에 주신 세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두 개의 힘의 봉우리들을 보게 하면서, 그 양쪽에서 이들과 피할 수 없이 관계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거기에 필요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세 본문들은 매우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길잡이를 해준다. 복음서는 총론적 양측(兩側) 면을 먼저 보게 하고, 서신서는 그 중 세속 권력의 축을 맡아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고, 신명기는 나머지 하나님의 축을 맡아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다.

이 두 권력, 곧 세상의 정치(政治)권력과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 통치(統治) 권력은 진정 우리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대상들이다. 다만 세상 권력은 보이는 구조상의 법적인 것이라서 온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다. 집단적으로 부여된 의무와 권리를 바탕으로 책임과 함께 보호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권력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 불신자들에게는 거절하고 외면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내면적 관계에서 형성된-, 그것도 믿음과 양심의 영적 차원에서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제시된 하나님 섬김의 계명들은 여전히 존재를 걸고 지켜야 할 질서이다.

이러한 두 권력에 대한 섬김을 제시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참조)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17절)라며 질문한 끝에 나온 예수님의 답변에서 드러난 바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들은 가이샤(황제)에게 납세 여부를 놓고 예수를 시험하려 들었으나, 예수님은 거기에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바치라는 것도 추가시킨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예수님은 세속 권력자의 정당성 내지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세속 사회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실체에 대하여서는 일단 인정하셨다는 점이다(삼상 8:22). 그 기능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서신서 내용을 통해서 보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세속 권력을 수용하셨다. 비록 당신을 불의로 심판하고 처형까지 집행했던 권력이었지만, 그 권력 자체는 인정하셨다. 이는 평소 로마 권력에 저항 내지 비판적 경향을 보이면서 납세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바리새인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 모습이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에 놀란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납세(십일조 등 헌금)의무를 게을리하는 모습에도 묵과하지 아니하셨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 시험에 나섰던 권력 집단인 헤롯 당원들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한 태도에 침묵하지 아니하신 이유였다. 곧 그들에게 부여된 두 권력들, 로마 황제를 향한 납세의무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헌금 의무도 온전히 감당하여서, 백성으로서의 의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일깨우셨다.

우리는 오늘 이 양대 축(軸), 곧 하나님 통치와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대응 방안을 배운다.

먼저 하나님 통치를 향한 백성의 섬김의 내용은 모세의 신명기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배우게 된다. 사실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왕 등의 인간 우두머리가 없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 통치자였고 그의 계명이 백성의 삶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규였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 섬김의 부분을 충분히 배운다.

반면에 세상 권력에 대한 백성들의 섬김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존한다. 그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상받는 황제의 절대 권력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 인물이다. 그러기에 세속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도 잘 알고 살았으며, 그 자신도 그 권력에 의하여 순교까지 당했다. 그것은 그가 세속 권력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법으로 인식하고 순복하며 살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원칙은 이것이다. 참된 권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세상 권력은 자신의 한계를 명심해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대적은 그게 바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의 선하신 뜻을 받들려는 의지로 부여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편(便) 들어주심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권세자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문들을 통하여 세부 내용을 보자.

1. 복음서 / 마22:15-22 / "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걸 예수님은 항상 비판하셨다. 본문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그의 모든 행보를 저지하려고, 또 다른 예수 비판 세력인 헤롯 당원들과 연대하여, 예수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거냐 저거냐'라는 양자 선택적 답을 요구한 시험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시한 답변은 '이것과 저것 모두를 다 하라'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그들 양측 시험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퇴각하게 되었다. 어떤 점에서 그랬나? 바리새인들은 내심 '바치라'를 기대했다. 그러면 예수를 반민족적이요 위선적인 인물로 매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헤롯당원들은 '바치지 마라'를 기대했다. 그래야 예수를 반국가적 선동자로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답변하시자. 그들은 예수가 아닌 자기들부터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납세 의무에서의 반국가적 수준에 있는 자신들 모습을 문제로 보아야 했고, 헤롯당원들은 세속 권력에 부화뇌동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바침의 의무에는 소홀히 하는 탕자들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작 죄를 물어야할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기에 충격을 받은 모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야 말았다(22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속 권력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를 시인하는 선에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식민지 백성의 굴레임에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안고 가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꾸준히 하셨다. 진리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모습을 취하신 것이다(요18:37 참조). 하지만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겐 매우 엄중히 경고도 하셨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맡은 직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소명(영혼)을 잃은 직업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서신서 / 롬13:1-7 / "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사도 바울의 세계 전도가 어떤 시대(時代)정신을 가지고 펼쳐졌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만일 로마 황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반정부적인 비판적 시각을 앞세워 선교에 임하였다면, 그의 선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출발도 전에, 이미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일단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한계성과 함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주목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점에서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 방향을 수용하였다고 본다(마22:21 참조),

1) 그가 위에 있는 권세(세속 권력)에 성도들이 복종할 것을 지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정해 주신 바이기 때문임을 밝혔다(1절).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바울은 국가와 권력이 주신 분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함께 보게 하였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대행하기 때문이다(2절).

2) 그는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4절), 하나님을 대리하여 국가와 국민의 제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사안들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그러기에 권세자는 선행자에게는 칭찬하고, 범법자에게는 칼과 진노를 내리는 일들을 중심을 잡고 잘 주도한다(3-4절).

단,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인 세속 권력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탈선과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경고가 없다. 그 이유는 이곳이 국가 권력과 집행자에 관련된 원칙만을 밝히려는 곳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록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도, 그 자리를 악용해 자기만족이나 사익 추구로 질서를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욱 혹독한 징벌을 가할 것임이 너무도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3) 바울은 이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기를 바랐다. 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협력하라고 권했다(6절). 그럴 때, 교회는 세속 권력과의 우호적 여건 속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줄 것은 주고, 바칠 것은 바치며,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는 분별력이 발휘하라고 했다(6-7절).

3. 구약 / 신 8:1-20 /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래 갖게 된 40년간의 광야(廣野) 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매우 유익한 교육 현장'이었다. 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뼈저리게 배우고 익히는 훈련장이었다. 낮에는 40-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땅이었고, 밤에는 사막의 냉기가 흘러서 추위를 견디어 내야 하는 힘겨운 생존의 터전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절대 필요한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먹거리가 문제였다. 농사나 목축이 불가한 상태였고, 마실 물도 매 순간 위기였다.

이를 위해 여호와께서 매우 특별한 음식으로 식물성 식품인 만나를 매일 아침 새벽에 공급하여 주셨고, 동물성 담백질용(用)으로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식수를 위하여 분천과 샘을 수시로 만나 마시게 하시거나 반석을 깨어 용수를 공급하시는 등의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의복들도 해어지지 않게 살았으며 발도 부르트지 않게 살았다(4절).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취할 생명의 양식이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 말씀을 취하였고, 가족 중심의 쉐마교육이 병행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젖과 꿀이 약속된 미래의 가나안 생활을 대비하였다. 본문은 모세가 머잖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절대 계명을 제시한 내용이다(1-2절). 이 두 가지 균형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1) 이들은 광야 40년 생활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시험(試驗)하신 과정이었기 때문이다(11-16절).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 동시에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는 지도 살피고자 하셨다(2절).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줄을 알게 하심이었다(3절, 마4:4, 요4:34 참조).

2)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혹독한 징계도 받았다. 그것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으로 받아야 했다. 그래서 어쨌든지 자신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살며 그의 길을 좇아야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겨 주실 아름다운 땅(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식물이 풍성하며, 지하자원도 풍부한 곳)에 들어가 제대로 상속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5-10절).

3) 동시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줄 불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와 염려, 그리고 경고를 보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이 풍성하고 안정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11,14절).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財物)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17절). 이게 왜 그토록 무서운 일인가? 그런 배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그 신에게 절을 한데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19-20절).

4)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사는 일이다'. 아울러 '그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能力)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사는 일이다(18절).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며 깨우침이다. 주신 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기본 윤리(倫理)이다. 망각하면, 관계가 깨어지면서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감사와 기억의 법은 세속에 대한 윤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국가라는 큰 힘의 두 양극 체제 속에서 그 일원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국가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이다. 다만 하나님은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여, 상당한 권한과 힘을 세속 권력에 이양해 주셨다. 그러기에 세상 권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힘을 행사하는 일에 겸손해야 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의 뜻을 받들어 살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기장 총회 제공

영국 경험론의 네 철학자들과 기독교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1. 경험과 이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과학은 경험과 합리와 객관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이성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프린스턴의 찰스 핫지나 벤자민 워필드 등도 이성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는 진리를 정신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성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어거스틴-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신학은 당연히 이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과 이성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철학이 증거하고 있지요. 이점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프린스턴 신학자들도 개혁주의를 따라 이성의 역할과 이성의 한계를 동시에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경험론적 변증학(empirical apologetics)은, 지식이란 결국 감각자료에 근거한다는 입장으로 실증주의적 변증학이라고도 하지요. 감각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철학이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 경험론의 네 철학자

경험은 과학에 필요하고 신학에도 어느 정도 유용하나 계시의 종교인 신학에 있어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론은 철학에서 왔으나 철학에서도 그 제한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론은 앎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의 문제인데 고대 경험론의 출발은 존재론적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경험론이라고 하면 주로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이후의 인식론적 주장들을 말합니다.

영국 경험론의 4대 인물이 있는데 베이컨(1561-1626)을 비롯하여 존 로크(1632-1704), 영국 국교회의 주교였던 조지 버클리(1685-1753), 데이빗 흄(1711-1776)이 그들입니다.

베이컨은 개별적 경험의 사실들을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귀납적 방법으로 경험론을 펴고, 로크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과정을 백지 상태(tabula rasa)의 마음 판에 모든 추론과 인식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 즉 관념이라는 경험(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으로 나눔)을 새기는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주교였던 버클리는 자신의 신앙적 믿음을 따라 매우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을 가지고 경험론을 펼치는 데, 인간의 감각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자연 법칙이란 결국 인간의 감각에 따라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습성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흄은 버클리와 정 반대로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또 다른 극단적 경험론으로 나아갑니다. 버클리는 경험을 통해 인간이 얻는 지각(perception)을, 인간이 사물을 통해 직접 받아들이는 인상(impression)과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idea)으로 나눕니다.

베이컨 식으로 하면 귀납법적으로 개별적 경험들이 많이 쌓여 지식의 힘이 생겨나는데 평생을 같이사는 부부도 가끔 서로의 속내를 잘 모르는 부분이 허다한 걸 보면 경험이 축적 된다고 참된 지식의 힘이 형성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단들의 오랜 지식과 신비적 경험이라는 것도 일정한 경험인데 그런 지식이 참 지식은 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천재 철학자 로크의 관념론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내적 경험은 사물이 가진 1차적 성질로부터 오는 데 이것은 사물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자신이 말한 타블라 라사와 모순을 일으킵니다. 제 2차적 성질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성질을 말하는 데 그렇게 되면 질문하신 상응설 자체는 당연히 너무 주관적 지식으로 흘러버릴 위험성이 있음을 알수 있지요.

버클리는 모든 지식을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장함으로 세상 철학자들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신학적 교설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창조과학적 험증을 잘못하다가는 언제든 버클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틈새를 메우는 하나님 논리를 경계해야 함》).

흄은 회의론자라 로크가 말하는 사물의 객관적 성질로서의 제 1차적 성질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흄은 인과관계(causality) 까지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 진리라는 것도 흄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너무 회의론자가 되어 버리면 참 신앙을 소유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회의론적 사고 때문이지요. 흄의 경험론은 더 이상 경험주의는 없다는 경험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3. 경험론 철학의 영향

(상응을 포함하여)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흄의 회의론적 경험론은 독일의 칸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던 유럽의 실재론에 일대 자성의 계기가 되었고 역설적으로는 신학의 세속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또한 흄의 경험론은 프랑스의 합리론에도 영향을 미쳐 계몽주의를 탄생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20 세기 들어 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도 경험론의 토대 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서 볼 때 흄의 회의주의적 경험론은 어찌되었든 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역사적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이런 학문적 신앙적 토대에 대한 지도자들의 극단적 무지와 극단적 신비주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베이컨(1561-1626)

존 로크(1632-1704)

조지 버클리(1685-1753)

데이빗 흄(1711-1776)

성육신의 의미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요한복음 1장 1절~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에 대한 의문은 지난 2천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는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찾아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친히 경험하셨다 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결국,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해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셨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은 또 빛이나 생명, 영, 능력과 같이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말씀으로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천사가 가르쳐 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의 세계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약 150회나 '헷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90% 이상이 하나님 성품과 연결되어 쓰였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27회나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마리아인을 통해 긍휼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비참함을 줍니다. 죄로 인해 비참해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값없이 베풀어주는 긍휼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체면이나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Not I의 태도로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본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도 부드럽고 눈동자도 따뜻합니다. 그렇다고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완벽한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동 지옥에 갈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습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복숭아가 아니라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듯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18장에서 왕에게 일만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자 다시 그를 불러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더랜드와 천국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가슴 저리게 슬픈 소식을 들었다. 결혼한 지 일 년 된 임산부가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구했지만. 결혼기념일을 몇일 앞두고 이런 슬픈 일을 당한 남편과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떠했을까?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언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사별의 충격은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한다. 갑작스런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슬픈 감정이상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추〉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중국 배우 '탕웨이'와 결혼해 이름을 알린 김태용 영화감독이 9년 만에 신작 〈원더랜드〉를 발표했다. 탕웨이와 박보검과 수지, 배두나와 최우식, 정유미, 공유 등 호화 출연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이 직접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이 작품이 다룬 주제가 특이하다. "상실과 재회"다.

김태용 감독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인 사별의 고통이나 식물인간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현실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멀지 않는 미래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발전으로 실제와 거의 같은 인물을 AI로 만들어 대화와 감정적 교류가 가능해지는 날이올 것을 예견하고 만든 이야기이다.

원더랜드란 실제와 같은 가상현실(메타버스)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공간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원더랜드에서 만나는 아내, 큰 사고로 무의식 상태에 빠진 연인을 멀리 우주선에 임무중인 자로 원더랜드에서 만나는 여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수퍼우먼인 엄마는 원더랜드에 가입해 어린 딸에게 차마 죽음을 알리지 않고 먼 나라로 고고학 발굴을 떠난 엄마로 남게 하려는 사연 등 모든 경우가 가슴 아픈 상실의 감정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다룬다.

감독은 원더랜드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라도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전해주고 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훌륭한 작품으로 그렸다고 본다.

이 작품은 미래사회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현재에 끌어와 다룬 문제작이다. 하지만 감독이 의도한 주제인 "상실과 재회" 그 이상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 그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불신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즉 종교계에는 새로운 과학적 도전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즉 가상현실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통한 가상 경험은 실제 영적 경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기도와 예배와 영성수련 등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천국은 가상 현실과 같은 조작된 공간이 아니다. 신이 존재하듯 신의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후에 누구나 가상현실이 아닌 신의 세계앞에 서게 된다. 이로 인해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선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한다.

교회는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며, 기술과의 상호 보완적 접근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 경험을 강화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야 하겠다.

진정한 성도의 휴식

이민규 목사
훼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한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어떤 분은 길게 어떤 분은 짧게 각자의 상황에 맞쳐 여름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계절은 우리가 육신의 피로를 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육의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휴식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신 적이 있습니다(마가복음 6:31). 이는 단지 육체적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 또한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아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 동안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휴식은 잠시 동안의 위로와 재충전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휴가가 육체적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이번 여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김성수 목사
시애틀 지구촌교회

최근에 저는 짧은 인터뷰 숏컷을 보았습니다. 지금 막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하려던 김연아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라고 묻자, 김 선수는 막 웃으면서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하하하"라고 반응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 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서 잔디를 깎는데 갑자기 이 영상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더운 날씨에 목은 타고 땀이 온몸에 흠뻑 젖어 힘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쉬는데 "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깎아온 잔디밭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깎아야 할 잔디를 바라보니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후회의 마음이 저를 엄습하려는데 갑자기 그 짧은 영상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이때 마음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멘탈 강하기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그냥 하는 것"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쉬운 성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정일이든, 직장이나 사업, 교회 일,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본래 하고 싶었던 것이고 기회가 되어 시작했지만 막상 공부를 다시 해 보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공부가 섬김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속에 멘탈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길 것입니다. 나를 끌어 내리고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으려 할 때 저는 "그냥 할 것"입니다. 이 공부는 언젠가 마칠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겨레 사랑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우찌무라 간죠(內村鑑三)는 일본이 낳은 위대한 크리스천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로 일본을 현대화시킴에 공로를 끼친 인물 20명을 뽑으면서, 그 중 한 사람으로 우찌무라 간죠 선정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병합하고, 중국을 침략하며, 연전연승을 거듭할 때 전 일본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하던 때 홀로 말하였습니다.

"일본이 동양의 평화에 기여하여야지 지금처럼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일본이 지금 할 일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회개다."

때문에 그는 비국민이라 핍박당하고, 직장인 제일고등중학교 교사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그는 동경의 자신의 집 6평짜리 방에 청년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패한 후의 일본을 건설할 일꾼들을 성경의 진리로 깨우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무덤 앞에 세울 묘비명을 스스로 적어 남겼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글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에서 따온 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

우찌무라 간죠 선생이 말하였듯이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은 미국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본 크리스천은 일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크리스천은 한국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과 겨레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 믿음, 지금, 여기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나무의 나이테는 그 나무의 삶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기록은 마음에 한켠 한켠 새겨져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훈련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성도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인생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는 인텐시브 (집중적인) 신앙 훈련입니다. 짧은 시간 많은 영적 훈련인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 새로운 믿음 성숙의 길을 열어 줍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거짓이 일상화됩니다.

신앙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살립니다. 기회가 은혜입니다. 기회가 기적입니다. 그 기회의 시작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충만 부흥회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경주자는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고 다른 길로 갈 여유가 없습니다.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젖 먹던 힘까지 다 쏟는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보배로운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한 단계만 더 들어오면 성령 충만의 시작

홍광선 목사
노아의 방주 선교회

성령 충만의 여정의 시작점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곳에서 자신을 비우게 될 때 시작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빈 그릇 가운데 그분의 영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21절에서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한다.

즉 우리는 "당신의 영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충만히 채움 받으려면 빈 그릇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내 심령의 보좌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 성령님은 충만히 역사할 수 없다.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지만 얻지 못함은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충만히 임하지 않은 것이다.

내 심령의 보좌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훼방하는데 어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도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막는 하나의 큰 세력은 바로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곧 범인이다.

죄의 능력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사단의 힘 때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죄란 육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의 정서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착각하곤 한다. 은사를 받았거나 교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마치 나무의 가지만 다듬고 있을 뿐, 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본성의 뿌리는 건들지 않고 가지만 치고 있거나 죄가 속해지기만을 바라니 어찌 쓴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겠는가? 주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성도는 회개의 차원을 지나서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아는 훨씬 더 깊고 교묘하게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를 대속함에 관한 계시일 뿐 아니라 육체에 뿌리 박은 죄의 실제적인 지배는 십자가 자기부인을 통해 벗어나는 능력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 앤드류 머레이는 '십자가는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우리의 육신적 본성을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 우리의 옛 자아,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주저하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될 때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법적으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십자가는 육의 삶을 끝내고 영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십자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다.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한 세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매일, 매 순간 지속되어야 하는 여정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께서는 점점 더 깊이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장 자유롭고 풍성한 삶의 길이기도 하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마치 성령의 전을 세워가는 여정과 같다. 성전부지를 청소하듯이 세속적인 생각을 비워야 하며 회개와 겸손의 고백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말씀으로 골조를 세우며 자아 내려놓기로 성령님 보좌를 마련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벽을 쌓고 찬양과 경배로 성전 봉헌을 하며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으로 성전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

이러한 삶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영광송(Trinitarian Doxology)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오늘날 블버리즘(Bulverism) 의 영향이 일상의 여러 일들에 혼탁함을 더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찬송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 가장 뿌리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의 제자들과 속사도들이 목숨을 던지며 삼위일체 복음을 확장해 오던 가운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종교나, 영지주의(Gnosticism) 등의 영향으로 삼위일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성지자 중 한 명인 아리우스(arius, 250/256-336년)가 중심이 된 아리우스파에 의해 삼위일체론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종식된 후 첫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First Council of Nicaea, 325년)에서 대두된 가장 큰 논쟁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신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이 결국 당시 알렉산드라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에 의해 삼위일체론을 정론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과 정통 수립 과정은 신학적 논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그 안에 드리는 찬양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세기 이후 교회들에서는 삼위일체 영광송 (Trinitarian Doxology)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 찬양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세 절에 걸쳐 삼위 하나님을 나누어 찬양하다 마지막 사절에서 삼위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 위와 같은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송은 전능왕 오셔서(Come, Thou Almighty King) 입니다. 이 찬송에 담긴 역사적 사건은 또 한 번 오늘을 사는 예배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슴에 담게 하는 큰 교훈을 줍니다.

미국의 독립 전쟁 주요 전투 중 하나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전쟁(Battle of Long Island)은 미국의 군대가 영국군과 싸운 첫 전투입니다.

이 기간 중 주일날 미군과 영국군 모두 교회에 참석했는데, 작은 동지애와 긴장감이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군인들은 회중에게 '은혜로우신 우리의 왕을 구하소서' - (영국의 국가)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오르간 연주자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왕을 구하시고 우리의 귀하신 왕 만세!

하지만 미국 회중들이 부르는 삼위일체 찬양에 그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Help us Thy name to sing,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이때 불리워진 튠은 1745년 만들어진 영국의 네셔널 안템 입니다. 1575년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사회 예배를 위한 찬송집』 제22판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그 당시 이 튠을 그대로 하고 가사만 바꾸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곡 안에 두 개의 가사가 공존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작시자 비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찬송가와 영국의 국가와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튠은 Italian Hymn" 이라는 곡조로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펠리체 자르디니 (Felice Giardini , 1716-1796)가 1769년에 작곡한 것입니다. 이 작곡가는 이탈리아에서 출생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며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때 개신교의 철저한 후원자였던 헌팅던 백작 부인의 요청으로 이 튠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첫 번째로 부각되었던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이었음을 보게 되며 또 오늘날까지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에 거론했던 두 역사적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타나시우파에 의해 정립된 삼위일체론은 이후 기독교 예배자들에게 찬송이 되어 지속적으로 불리며 그 당위성을 가슴에 새기게 하면서 흔들림 없이 삼위일체 신학을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1776년 8월 마지막 주일 롱아일랜드 어느 교회 예배에서 찬송가와 애국가라는 서로 다른 두 곡의 노래는 각 나라의 충성심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예배자들이 삼위일체 영광송 (Trinitarian Doxology)이 중심이 된 찬양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부합된 원초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수급자 많은 회사 보험료 추가 부과

6회 이상은 50% 감액…수급자 많은 사업장도 보험료 40%↑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내용 법안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고용보험법, 평생능력직업법,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고용부가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조사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에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공인노무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이루리 기자

이달 31일부터 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져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금전·물품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카드 포인트,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자신들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 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 모집 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 단체에 계좌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카드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부의 날과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 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부금 문화는 활성화하되 관리 투명성은 높이기로 했다. 기부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할 사항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 금액, 모집기간, 사용 기간도 추가한다.

전화, 택배 등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접수 방법도 다양화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지만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계좌 입금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도 전화(ARS)와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리 기자

“의료취약계층 임산부 절반이 유산·사산…전체 평균 2배”

전체 임산부 4명 중 1명이 유·사산
의료수급권자 임산부는 2배 비율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 필요”

지난해 의료취약계층 임산부 2명 중 1명 꼴로 유·사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산부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임산부 30만4460명중 7만6835건의 유·사산이 발생했다. 전체 임산부 4명 중 1명이 출산 전 아이를 잃은 것이다.

이 중 의료수급권자 임산부는 총 228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65명이 유·사산해 전체 평균 대비 2배 높은 유·사산율을 보였다.

올해 1~3월에도 전체 임산부 유·사산율은 25.6%,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유·사산율은 50.9%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연령대를 구분해서 봐도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유·사산율은 20~40대에서 모두 전체 임산부 평균보다 높았다. 20대 유·사산율은 의료급여수급 임산부가 48.7%, 전체임산부가 32%였고 30대는 각각 37.8%, 23.1%로 나타났다. 40대는 각각 65.3%, 48.3%였다.

이는 유·사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의료급여수급 임산부의 유·사산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유·사산율과 관련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서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임산부는 임신기간 중에라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산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된다”며 “의료취약계층 임산부 유·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고용부, 일반고 3학년생 취업 도울 훈련기관 찾는다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 시행
훈련 참여자에게 월 최대 20만원 장려금
기관서 미용·제과 등 65개 직종 훈련 제공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할 기관을 찾는다.

고용부는 16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는 월 최대 20만원의 장려금도 받는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 직종을 확대했다.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업해 훈련과정을 설계한 뒤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9년 간 약 6만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70.5%의 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일반고 3학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해 자립과 조기 취업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접수 기간 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한다. 결과는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자세한 안내자료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일반고 특화과정 심사 설명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다은 기자

MARKETPLACE
마켓 플레이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제 2586호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 윤 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겸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 사 : **이재흔 목사.**
장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 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담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사랑의 교회 당회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최모산 목사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사역입니다
악한영결박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낫습니다
유튜브검색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 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2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최초판매기념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독교 핵심 교리 해설

신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이자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신칼뱅주의를 이끌었던 헤르만 바빙크(1854-1921)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계와 목회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주저 〈개혁교의학〉(1906-1911)을 집필했다. 〈개혁교의학〉을 집필 후 개정까지 마무리하고나서 그는 젊은 지식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조금 더 쉬운 교의학 책인 〈하나님의 큰 일〉(1909)를 썼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번에는 교회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인 대학교 새내기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서인 〈기독교 신앙 안내서〉(1913)을 펴냈다. 당시 바빙크의 나이는 59세로 사망하기 8년 전이다. 이 책은 그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방대한 교의학적 지식의 핵심과 보편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심이 담겨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결코 완전히 뿌리 뽑을 수도, 부술 수도 없다. 비록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속성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는 '작은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다. 이 흔적들은 인간이 완전히 순결하다는 사실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전에 가졌던 위대함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천국에 갈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참되게 고백한다. 오류들이 더욱 정교한 형태로 나타날 때, 교회는 자신이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설명하고, 또한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하고도 분명한 용어로 표현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러므로, 상황의 긴박함 때문에 입으로 하는 신앙고백은 글로 기록된 신앙고백(신조 또는 신앙고백서)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에도 존재한다면, 재창조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따라 내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죄는 죄책일 뿐 아니라 오염이기도 하다. 칭의는 인간을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게 한다. 칭의를 통해 인간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화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변화된다. 칭의를 통해 인간은 다시 선해지며, 성화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선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언급된 세 가지 표징, 즉 순수한 복음의 설교, 성례의 순수한 집행, 교회 권징의 보존 외에도 이 말씀의 유일한 표지를 지닐 수 있는 다른 많은 방식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표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교회가 더 크거나 작게 말씀에 일치하거나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참되고 순수한 교회가 되거나 거짓 교회에 가까워진다. 참으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든 참된 회원은 중생하고, 믿음과 회개에 이르며, 정결하고 거룩해지며, 함께 모이고 굳건해진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에 관한 이야기

신간 '칭의 대신 정의의 시선으로 로마서 읽기'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로워져 이 땅에서 복받아 성공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로마서 1:17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는 구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나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구원 이후에 따라와야 할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책임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저자 더글라스 하링크 교수(캐나다 앨버트주 킹스 대학교 신학과)는 의로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의로운', '의'라는 단어가 부적절하게 번역되어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거의 배타적으로 개인적·도덕적·종교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종종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로마서가 정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서신임을 보여주고 바울이 선포하는 좋은 소식에 따른 정의가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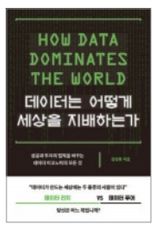
저자는 책 속에서 "바울 연구에서 정의의 부재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관한 사고에서 바울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서론의 한 가지 과제다. 바울의 기본적인 어휘 몇 개를 다시 배워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정의라는 중요한 주제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다. 이 책의 나머지에서 나는 바울이 로마의 메시아 추종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정의의 메시지로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메시아가 하나님의 정의시다. 이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었던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많은 신과 주를 공경하는 것은 그 진리에 반한다. 그러나 유데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한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의 성경 자료로부터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묵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정의임을 드러내고 확립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 특별한 신적 묵시가 바로 그것을 유데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게 만드는 요소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로마서 5:12-21에서 바울은 인간의 행동, 즉 메시아의 완전하고 진정 한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분 안에서 신적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결합하고 동시에 발생하여 완벽한 정의를 이룬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그의 인간적 정의를 옹호하시는데 이는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데이터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최저가격보다 '별점'과 '좋아요' 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시대다.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 정보보다 '오늘의 쇼핑 제안', '최근 구매 상품', '좋아할 만한 상품'을 앞다퉈 보여준다.

책 '데이터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는 데이터가 가져오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상을 폭넓게 포착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와 경영, 기업 전략,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통하던 방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자는 데이터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를 좌우할 주제'임을 강조한다.

특히 경제 지형의 변화가 가장 크다. 데이터는 이미 화폐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 대신 고객의 데이터를 받는다. 기업들은 화폐를 대체한 재화인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헬스케어, 온라인 쇼핑 등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수익 모델을 갖췄다.

과거 재산이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기준이었다면,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데이터 리치(Data rich)와 데이터 푸어(Data poor) 간 격차가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내가 가진 콘텐츠의 가치는 대중으로부터 받는 좋아요의 숫자로 증명된다. 이런 사실은 과거처럼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뜻한다.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유통하는 자격을 얻는 시대다."(47쪽) 이예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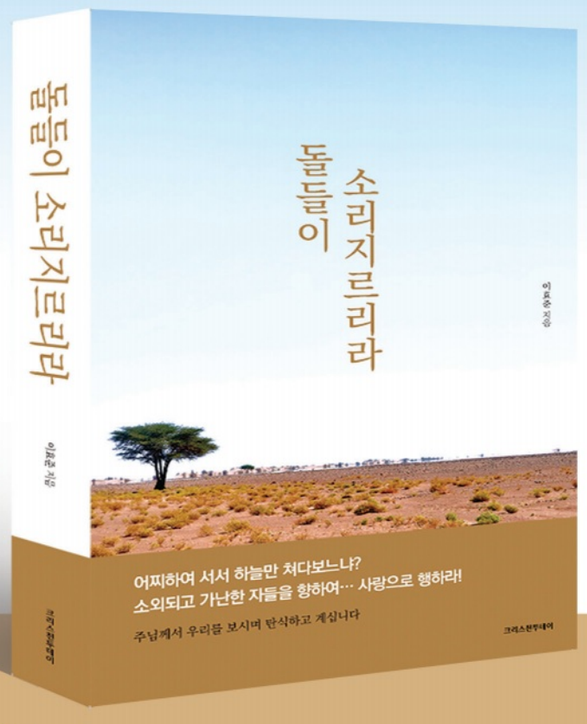
7월, 작가들의 말말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의 성육신은 로고스의 신성과 초월성과 영원성을 버리고 유한성의 세계와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물질성, 육체의 연약성, 정신의 한계성 속에 온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그는 세계-내-존재로 역사 속에서 운동하며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전진한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나사렛 예수의 몸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다. 영원한 성전인 그의 몸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될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 창조의 출발점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계시적 사건이다. 진철 '영원한 로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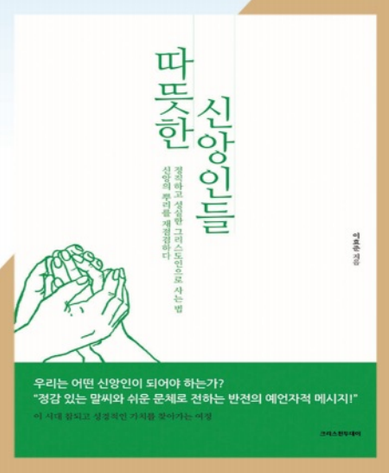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이 단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선지자 모세는 신이 한 분밖에 없기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스스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김태희 '새가족 교회에 깃들다'

대림의 시기는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오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천 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으로 오시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로 다시 오실 주님, 대림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오심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기도, 금식, 자선, 절제를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대림절의 색을 속죄와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주일마다 대림초를 하나씩 밝히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심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빛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기도, 자선, 절제를 통해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신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주훈 '교회력 그리고 기도'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벧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13

여러분의 개인기도 제단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경건의 생명입니다. 성소와 가정 제단들이 여기서 불을 빌려 갑니다. 따라서 이 불이 잘 피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은밀한 기도 생활이야말로 생명 있는 참 기독교의 정수요 증거요 측정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희생 제물 기름을 태우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의 골방에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자주 기도하십시오. 효과적인 기도는 쓸모가 아주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 여러분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의가 없습니까? 가슴 속에서 기도의 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입니까? 의무적으로 질질 끌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썩어질 징조입니다. 그러니 가서 슬피 울며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 주십사고 간청하십시오.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별 기도를 드리십시오. 만일 이 불이 세상과의 일치라는 재 밑에서 질식해 버리면, 가정 제단 위에 있는 불마저 희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영향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가슴이라는 제단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정말 금으로 된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을 온통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그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께서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시지 않으면,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 불을 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벽 뒤에서 그곳에 거룩한 기름을 계속 부어 주시면 그 불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가슴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그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석탄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설교도 들읍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열방 선교단 제공

날 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5)

1723년 7월 19일 금요일 오후

성경 이해와 적용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들을 영예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구절과 다음의 두 구절이 함께 그 답을 준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19-20)".

1723년 7월 20일 토요일 정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문제

맨톤 박사의 시편 119편 140-141페이지에 나오는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적용에는 기만과 꾸짖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온다. 둘 다 아주, 나쁜 것이다. 외식자들과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부패를 외면한다.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성도 중의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의 괴수라고까지 말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을 빼앗아 간다. 당신의 이름을 빼앗아 가는 자는 가장 나쁜 도둑이다. 잠언 22:1절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 택할 것이요"

반대.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인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가?

답변.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 즉,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즉,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부드러움과 슬픔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받아주는 자들은 상대방이 하는 나쁜 평판을 지지해줌으로써 그 헐뜯음을 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이 된다.

1723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의무상 달리 행동해야 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바람직 한 것이다. 내가 특별히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나 않은지 두렵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 잘 파악하도록 하자. 비사교적으로 보일까? 혹은, 친구 관계가 악화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경계하자. 내게는 아직까지도 편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남아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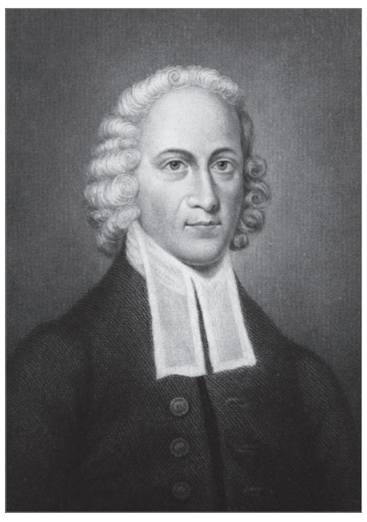
1723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성경 이해와 적용: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시편 기자가 시편 119:20절에서 말하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들을 촉진 시키도록 하며, 또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결심했다.

자기부인의 중요성, 죄 죽임

그리고 크게 자기를 부인할 기회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때 나는 죄의 몸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새 성품을 크게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



문이다. 나는 죄를 죽이고 거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 14일의 일기에 따라 이러한 것들은 최고의 기회들이다.

결심문 실천의 삶,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은 아주 쉽게 나를 낙담시키고, 내 정신적인 활력을 빼앗아 가며,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복된 기회로 활용하자.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57번 결심문에 따라 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자. 그리고 1월 10일 일기와 43번, 45번 결심문 또한, 1월 12일, 2월 17일과 21일, 5월 1일 일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천국에만 고정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자. 또한 고통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배우는 복 된 기회로 삼으며, 나 자신을 신앙적인 실천에 몰두함으로써 내 생각을 고통에서 떠나게 하자. 또한 나의 마음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통의 본질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삼자. 고통이 현재는 비록 슬퍼 보이지만 고통에 의해서 내가 개선된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1723년 7월 24일 화요일 저녁

경건생활에 더욱 힘씀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머지않아 편안하고, 즐겁고 아주 유익하다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며 또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결심했다.

1723년 7월 25일 목요일 아침

결심문 작성 및 수정

8번째 결심문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4월 1일의 결심을 확증했다. 메모. 편리한 시간에 이 결심문들은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처해있는 상황과 내가 해야 할 의무에 적합하게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Matthew 6:9-10 NIV
.....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 hallowed : 존경과 찬양(讚揚)을 받는
- come : 나타나다
- will : 뜻, 의지
- be done : 이루어진, 완성된
- as it is in heaven :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 위의 문장들은 "may + 주어 + 동사원형"에서 may가 생략되어 있음

마태복음 6장 9~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나타나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강지윤 칼럼 불안의 내재화

강지윤 박사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던 제가 보이네요.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듯 살았군요. 정말 불쌍한 제가 제 속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했나봐요. 그래서 더 신경질적이고 잘 토라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자라나서 늘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안을 어찌할 수 없어서 늘 사람을 피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직면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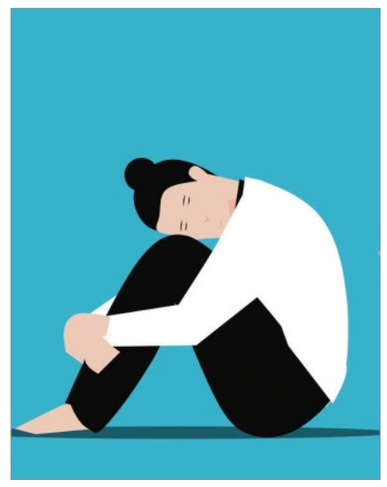
우리가 불안한 것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불안의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불안 상황을 야기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불안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작은 아이였을 때 우리는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거인과도 같은 완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과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아이에게 새겨지고,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안의 이면에 매달린 분노는 이러한 불안을 억누르기 위한 방어기제이지만 이 병리적 분노는 또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이것이 사소한 부모의 어떤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쌓아놓은 결과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 하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부모의 말투, 눈빛, 몸짓, 언어습관, 행동 패턴 등은 아이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내면화되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부정적 영향이나 파괴적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억압하면 아이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기준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의 기준에 따라 심한 체벌을 하는 것도 아이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부모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아이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겪었을 무수한 불안과 깜짝 놀람과 두려움과 무서운 기억들은 망령처럼 그대로 살아서 현재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영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웃어라, 복이 온다

모든 일은 먼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곧 마음 속에서 이뤄진 일은 현실에서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갈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일입니까?

행복한 부자는 행복한 말, 행복한 얼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행복한 말, 얼굴, 마음을 지향하다 보면 실제로 행복이 자신의 삶 속으로 끌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행복한 마음에 집중하면 행복한 일들이 생깁니다. 행복한 부자는 좋은 것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맙다는 감정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을 감사로 늘 환기시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가난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빚을 생각하면 빚이 현실로 나타나고, 부채를 걱정하면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무심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해온 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마음을 바꾸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하루 내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나를 위해 준비된 유익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좌절과 불안, 어려움, 그 어느 것도 내가 꿈꾸는 풍요와 부, 성공의 이미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또 지금 그것을 주신다."

부자 인생으로 바꾸는 또 다른 힘은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부터 나옵니다. 부자의 얼굴에는 '부자 라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잘 웃습니다. '부자 라인'이라는 것은 미소를 항상 머금은 입 주위의 웃음 라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밝고 환한 표정은 인생을 바꿉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데이브 램지는 자신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20%의 지식과 80%의 행동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를 부자로 만든 80%의 행동에 대해 데이브 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탄탄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넘는 일입니다."

그는 어떤 행동의 변화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주로 남의 탓을 합니다. 탓할 사람이 없으면 운이 없어 그렇다며 원망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무겁고 무섭고 매력 없고…. 먼저 얼굴 표정에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것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침에 거울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라는 장애물 즉, 무겁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표정을 바꾸는 것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행운을 잡기 위해선 우선 웃는 사람이 될 것을 권합니다. 사람은 웃을 때 우리 몸의 근육 650개 중 231개가 움직이면서, 에어로빅 5분 이상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및 호흡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체계도 강화되고 뇌 산소 공급이 늘어 머리가 맑아지는 등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겐 진통의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은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위도 웃습니다.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위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렐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웃어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으로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웃음은 생후 두 달부터 시작돼 여섯 살 무렵엔 하루 300번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웃는 횟수가 하루 15번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려 거의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웃음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웃음은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해 불안 초조 긴장 등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 상태를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박동 둔화, 소화액 분비 증가, 장운동 촉진 등으로 몸이 편안해집니다.

웃음이 좋은 줄 알아도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요? 전문가들은 훈련을 통해서도 웃는 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자율신경이 이완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무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 훈련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기쁨이 표출되어야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얼굴 표정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면의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 용서하심과 의로움 등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사람의 얼굴 표정은 환하게 변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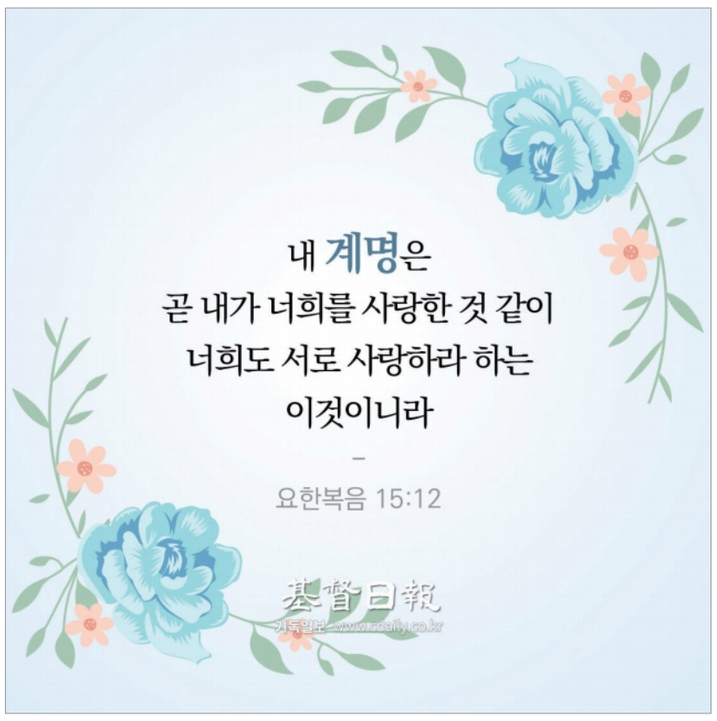
스펄전 목사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런던의 대설교자 조셉 파커 목사는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인상에서 주의 정원에 피어 있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써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밝고 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 표정을 통해 드러나고, 모든 일에 너그럽고 적극적이면서 성공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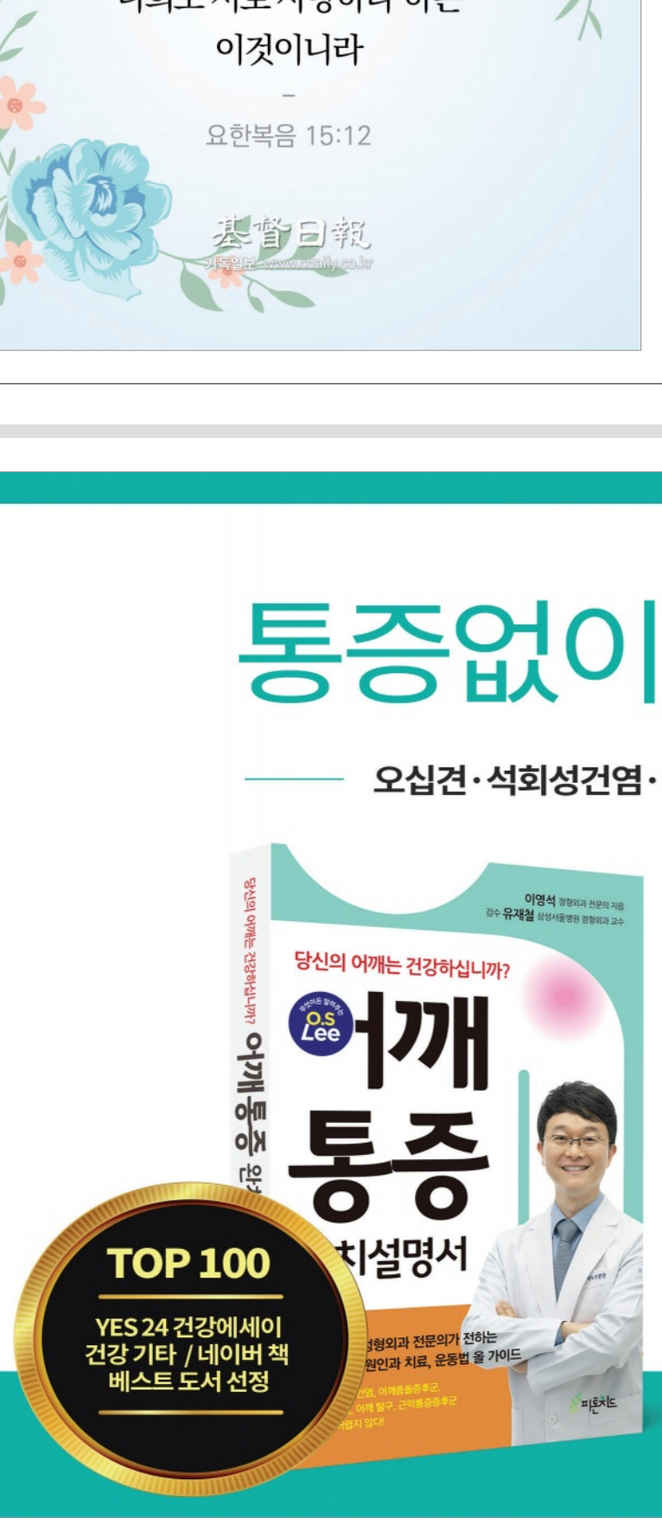
故 김성광 목사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신앙과 가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 한 대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본 순간, 누구나가 로망을 가지고 있듯이,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 차를 갖고 싶다는 염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잊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바로 제 앞에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그 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감탄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차가 왜 저렇게 후졌지? 내가 왜 저 차를 좋아했었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형편과 기회가 되면 갖고 싶다는 그 꿈의 차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니 왜 그렇게 촌스럽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것인지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아, 세상의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고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닿는 대로 그동안 '고향의 맛'을 추억 삼아 음식을 먹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에, 아니면 한국에서 살 때에 그렇게 맛있던 그 맛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그 맛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내 입맛이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음식 뿐이겠습니까? 의복은 어떠합니까? 몇 년만 지나면 유행이 지나서 입기가 민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준 옷들도 전혀 낡아지지 않았는데도 유행에서 벗어난 이유로 장롱에 모셔둔 것들이 어찌 한 둘입니까? 세상의 과학과 진리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옳았던 것들이 오늘에는 틀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과학을 가지고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교회의 젊은 과학자 한 분이 '목사님, 그 이론이 이미 오래되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론입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학문도 바뀝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유행하는 옷처럼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기대 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1-2).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변적인 세상의 풍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예언해 주는 점쟁이 되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알아 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적 신앙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어거스터스

사랑은 분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정상적인 삶마저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을 모릅니다. 받아보지를 못했기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마저 사랑받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두고 시력이 좋지 못한 자기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갈 4:15).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을 뽑아 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실제 뽑아 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더욱 기가막합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 놓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롬 16:4).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놓은 적도 물론 없습니다. 바울이 저들의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크게 받아들였던 바울은 삶도 그만큼 풍성하게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그토록 행복해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분명 사랑받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시대의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 주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현대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 줄 줄을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막상 남에게 사랑 줄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야 행복한데 줄 줄은 모르고 받을 줄만 아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교회마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거스터스가 태어날 때 이상한 노인이 산모를 찾아와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 아이를 위한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생각 끝에 "이 아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사랑에 취하여 교만해지고 남을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받은 사랑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점점 비참하게 되고 결국, 그의 말년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제 늙어 외롭게 죽어가는 어거스터스에게 이상한 노인이 다시 방문하여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거서터스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어거스터스는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얼마나 사랑받았고 얼마나 사랑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사랑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많이 줄수록 그만큼 내 사랑을 폭을, 내 인생의 폭을, 그리고 내 행복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내가 사랑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만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어거스터스의 마지막 소원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삼우 목사 (잠실중앙교회)

창골산 봉목사

향유옥합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

가장 값지고 건강한 조건의 환경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 어떤 인공의 환경도 없습니다.

아니 좋은 인공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이 곧 자연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자연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단히 자연으로 가면 될 것을!

오늘 이 등산화를 신거나 더 좋게는 맨발로 산길을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싸고 고귀한 산소와 산 기운과 바람과 하늘 숲의 아름다움을 거저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농장에서는 퇴비를 나르며 이 특권을 누리고자 모입니다. 그저 산에서 일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거문고와 향로

김영국 목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보여지는 예배는 실로 놀랍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그와 같은 장엄한 예배의 광경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다시 그 성경구절이 시작되는 8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harp)와 향(incense)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구절을 깊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제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계시해 주셨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이십사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2. 그들은 예배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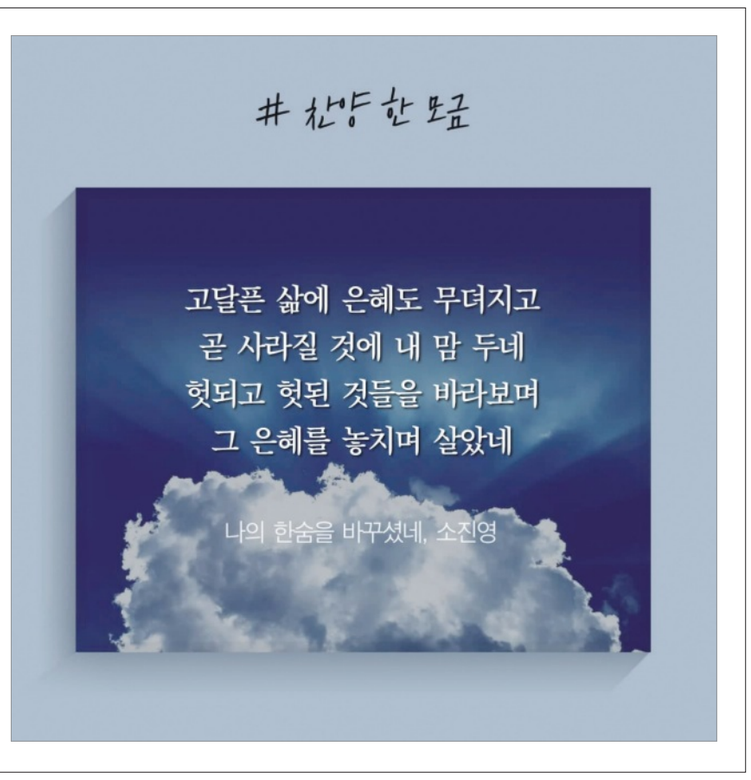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예배인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티켓은 무엇인가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음악, 그리고 기도. 두 가지 모두 양손에 하나씩. 그리고 그 두 개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회들마다 늘어놓는 그들의 기도생활에 대한 허울 좋은 변명을 생각할 때, 감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손에는 거문고를 들고 있지만, 다른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향의 제물 – 기도에 헌신된 삶, 기도에 헌신된 찬양대, 그리고 기도에 헌신된 교회 – 없이는 하나님께 충분하고 적절하고 알맞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그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 깨닫자마자, 저는 굵은 베와 재에 앉은 심정으로 오랫동안 회개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대로, 제가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서 그분의 앞장선 용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한 주간의 한심한 기도생활을 가지고는 그러한 임무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왜 저는 교회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저는 왜 원수의 흉계에 대항하여 이렇게도 입이 무거운지요? 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저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는 크게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기분전환으로 인도할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행동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대를 위한 기도의 소명

일단 저 자신의 기도 습관을 바꾸는 일 외에도 우리 찬양대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파악하자마자, 저는 찬양대원들이 그들의 기도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인도자(역대상 5장 참조)로서 그리고 앞장선 용사(역대상 20장 참조)로서의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은밀한 중에 중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활기 없이 흐리멍텅한 기도 습관에 익숙해져 온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온 후에 우리 찬양대는 기도하기 위하여 즉시 하던 일을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찬양대 연습이 끝나기 전 30분 동안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30분 일찍 모여서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 회중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할 때가 되었을 때는 찬양대석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마음과 손을 연결하여 잡고 간절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찬양대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찬양대 내의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관계"보다는 "기초"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오래된 격언을 기억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헤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뜨거운 지속적 기도는, 찬양대를 가장 잘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 핵심을 보면, 기도는 맨 처음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확립하여 유지해주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에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세워주며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배인도자는 기도의 용사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찬양대의 직무내용 설명서에 명시된 일입니다.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시간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완성 1

고웅일 목사

프랑스 속담에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그 말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기다리는 만큼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배인도자는 자신의 시간 개념은 물론이고, 팀원들 간에도 시간을 준수하는 일에 서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폭력 시민운동가로 역사에 남은 간디는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에 5분 늦게 도착한 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 때문에 국가의 통일이 5분이 늦어졌소."

예배는 매번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한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위한 1분 1초가 중요하다.

만약, 멤버들이 연습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경우 예배인도자는 먼저 그 멤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팀의 연습 상황에 대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한 멤버가 연습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가며 그를 허용해주기보다 그에게 상황이 호전될 때 다시 연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10분 늦는 것 때문에 예배의 완성도가 10분의 가치만큼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미완성된 연습으로 강단에 서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결국 그 멤버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역의 성실성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도록 리더가 방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가끔 벌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통해 팀 내 시간 준수를 엄격하게 다루었던 경험이 있다.

각 교회의 상황마다 벌금제도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다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도 팀의 시간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비싼 금액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칫 돈 몇 푼 때문에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멤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꼭 벌금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간이라는 규율을 어길 때 받게 되는 메시지를 던져줄 장치를 걸어두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나, 어떠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약속 시각에 대한 팀원들의 올바른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체육복을 입으면 뛰고 싶고, 잠옷을 입으면 쉬고 싶고, 군복을 입으면 전투하고 싶어지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마음가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궁극적으로 약속 시간에 대한 팀원들의 올바른 태도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배팀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시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길이 된다.

나는 예배팀 안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규율을 잘 지키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에서도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를 본다.

더 완성도 있는 예배는 모든 예배팀 원들이 시간을 잘 지켜 예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고웅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을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전도사의 실제 삶 다룬 연극 '리턴', 10월 대학로 공연

서울 영등포에 있는 수원하나교회 YDP캠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한 전도사의 실제 삶을 다룬 연극 '리턴'이 올 10월 대학로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연극의 원작은 김 전도사의 칼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다. 이 칼럼은 김 전도사가 청년시절 강제철거를 거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실화를 담고 있다.

흥미로운 건 칼럼의 실존 인물인 김성한 전도사가 직접 대본을 쓰는 작가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도사는 이번 '리턴' 작품이 기독교 성극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작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비기독교인들이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대사부터 이야기 전개 및 음악의 전문성까지 세심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 보편적 가치들을 요소요소에 집어넣어 재미와 감동, 깊은 여운들이 공연 후 관객들이 가지고 가게 될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관객들이 지루할 틈 없이 빠른 진행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도사는 이번 작품을 위해 기독교 연극영화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교회 청년들이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작품이 기독교 성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흥행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 부모 세대의 헌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와 믿음을 소재로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싶다"고도 말했다.

김성한 전도사 ⓒ제작사 측 제공

김 전도사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와 부모들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은 서울 대학로 '올레 홀'에서 오는 10월 21일과 28일 저녁 8시 2회 공연된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앙상블합창단, 창단 45주년 기념 여름 순회연주회 성료

경주와 병원 등지에서 복음의 메시지 전하며 감동 선사해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교회음악과가 주관하는 앙상블합창단이 창단 45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순회연주회를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경주 한마음교회(조요한 목사)와 열린교회(이원희 목사)를 비롯한 현대병원, 동산병원, 네스트빌요양원 등에서 '부르심'(렘 1:7)을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앙상블합창단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서울신학대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미국인 선교사 캐롤 미셸(한국명 민지은, 1940-2015) 교수에 의해 1979년 창단되어 45년의 전통을 지닌 선교 합창단이다.

앙상블합창단 공연 기념 사진. ⓒ서울신대

황현철 지도교수는 "단원들이 복음 활동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순회공연에 반주로 참여한 단원 김윤서(교회음악과·22)씨는 "경주 사역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무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돼 보람을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여름 순회연주회는 연주를 접한 이들과 단원들에게 깊은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복음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에세이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군포제일(권태진)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송(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에덴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샘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내일은 THE 행복한 출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큐티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에세이 30 자판기	20 다큐 더 로드 4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다니엘 기도회	30 노크토크에 물어봐 5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0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10 새롭게하소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20 힐링송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CBS NEWS 10 20 교회가는길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1:00	2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샘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내일은 THE 행복한 출근	00 올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샘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강단 든든한(장향희)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에세이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샘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말씀의 샘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박종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10 다큐인사이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	00 백석의 샘터
	15:00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이영은 목사(아름다운교회)	00 우리들의 지식살롱12 30 말씀의 샘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성찬, 주님의 식탁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0 성지가족 50 더 콜링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00 말씀의 샘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샘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영혼의 양식_양천(김동인)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Miracle Moment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THE 행복한 3040 맞춤전도 세미나 5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0	3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0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웅)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말씀의 샘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CBS비전특강 윤차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_일산광림(박동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50 GOODTV 뉴스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 50 샬롬 쌀롱	10 나의 십자가 30 제 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22:00	30 백세특강	10 오 자유여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잇쉬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CTS 스페셜	10 GOODTV 시네마 마가복음 1부 40 성서의 땅 요르단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10 주만찬 30 오늘 만나는 큐티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리바이즈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10 CBS 아카데미 숲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20 말씀노트 30 2023 다니엘 기도회	2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CBS 비전특강 이욥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올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교회소식	00 말씀 관통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www.seolhaeone.com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30

설해원 雪海園

골프를 놓고 봐도, 골프를 빼고 봐도
삼대三代의 평생 휴가, 설해수림雪海水林

펜트하우스 온천수영장

설해원 雪海園이 만드는 설해수림 회원모집

9회연속 10대코스에 선정된 명품 코스를 꾹꾹 눌러 담은 할인 혜택으로 누리고
4만평의 소나무숲과 19억년의 온천수, 다양한 객실, 청명한 공기, 탁월한 조망 ...
하나에서 열까지 좋은 것만 모은 리조트

회원모집 문의
02)513-0000